길림시절의 김일성주석

길림시절의 김일성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주체108(2019)년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김일성**주석

조중친선의 상징-길림육문중학교

머 리 말

중국의 송화강반에 자리잡고있는 길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잊지 못할 자욱을 남기신 사연깊은 고장이다.

지금으로부터 90여년전인 1927년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에서 3년 남짓한 세월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선진사상을 탐구하고 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시면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고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조선혁명의 튼튼한 골간력량을 마련하고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꾸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본상품배척투쟁을 비롯한 대중투쟁을 조직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만주침략의 야망을 실현하려던 일제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중국반동군벌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의 각계층 군중과도 깊은 련계를 맺으시고 조중친선의 씨앗을 뿌리시였다.

길림시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정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으며 비록 10대의 어리신 나이이시였지만 그이의 명망은 정말로 대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확대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도처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신 길림시절은 그이께서 벌리신 청년운동의 일대 전성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의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인민의 지혜와 창조력이 무한정 발양되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우리를 인민행렬차에 처음으로 태워준 길림시절에 감사를 드리군 한다.》

편집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수록한 도서 《길림시절의 **김일성**주석》이 독자들로 하여금 10대의 시절 그이의 인품과 덕망, 완강한 조직실천력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리라고 기대한다.

2019년 7월

차 례

1. 새로운 활무대

유 산

1926년 6월 5일 위대한 수령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고향으로부터 수천리 떨어진 이역의 자그마한 지붕밑에서 망국의 한을 풀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시였다.

조선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성장에 혁명적영향을 주시였다.

아버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어린시절부터 산좋고 물맑은 아름다운 조국과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에 대하여, 봉건통치배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과감히 싸운 인민들과 애국명장들에 대하여 그리고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와 민족적멸시,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키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지정해주신 진보적인 서적들과 신문, 잡지들을 많이 읽는 과정에 사회현상과 혁명투쟁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독자적인 사고력과 진지한 탐구력을 키워나가시였다.

아버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 병중에 계시던 때에 위대한 수령님을 옆에 앉히시고 자신의 인생체험가운데서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시였다.

아버님께서는 혁명가는 어디 가나 항상 3대각오 다시말하여 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를 가지고 처음 먹은 원대한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동지를 위해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동지를

얻을수 있다고 하시며 동지들을 많이 사귀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아버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가슴속깊이 새겨안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림종을 앞두고 강반석녀사께 이런 유언을 남기시였다.

《우리가 고향을 떠날 때는 독립을 이룩하고 함께 돌아가자고 하였는데 나는 못갈것 같소. 나라가 독립되면 당신이 성주를 앞세우고 고향에 가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자니 시름이 안 놓이오. 성주를 부탁하오. 내가 성주를 중학까지 공부시키자고 했는데 글러진것 같소. 당신이 할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먹더라도 중학까지는 공부시켜 주오. 그다음 그 아래 동생들은 성주가 할탓이요.》

그러시고나서 간수하고계시던 권총 두자루를 주시면서 수령님께서 앞으로 투쟁의 길에 나설 때 주라고 부탁하시였다.

아버님께서는 자제분들에게 이런 마지막가르침도 주시였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재물이나 금전상으로 상속받은것은 하나도 없었다.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유산의 전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아버님은 생명을 준 혈육인 동시에 어린 나이때부터 혁명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해준 스승이였고 지도자였다.

아버님의 서거는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을 비탄의 눈물속에서 일으켜세워준것은 아버님의 남다른 그 유산이였다.

당장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는 막막하고 암담한 슬픔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의 그 유산에서 힘을 얻고 갈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시였다.

환 멸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전에 있는 화성의숙에 입학하신것은 1926년 6월 중순이였다.

화성의숙은 독립군의 간부들을 키워낼 목적으로 1925년초에 세운 정의부소속의 2년제 군사정치학교였는데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성의숙의 교육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계시였다.

그러나 화성의숙에서 배워주는것은 민족주의사상과 구한국냄새가 나는 낡은 군사훈련뿐이였다.

화성의숙의 이러한 시대적락후성은 위대한 수령님으로 하여금 조선혁명을 이전의 낡은 방식대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하였다.

총 몇자루를 가지고 소규모의 무장단성원으로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왜놈순사나 몇놈 처단하고 군자금이나 모으러 다니는것과 같은 투쟁방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굳어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일 실망하신것은 화성의숙의 사상적락후성이였다.

그때 학생들속에서는 새 사조에 대한 동경심이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학교당국은 민족주의사상만을 주장하면서 선진사상은 무턱대고 배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시우총관의 서재에 있던 책들중에서 공산주의서적들을 정열적으로 탐독하시였다.

그무렵에는 벌써 그런 책을 보고싶어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고있을 정도로 늘어났을 때여서 독서순서와 기간을 정하고 제때에 책을 바치도록 하였다. 새 사조를 신봉하는 학우들사이에는 은연중에 약속된 독서규범이 있었던것이였다.

그런데 한 학생이 력사시간에 책을 몰래 꺼내보다가 교원에게 빼앗겼다.

그 책이 최동오숙장의 손에까지 들어가서 큰 말썽을 일으켰다.

학교당국은 그 책이 위대한 수령님을 통해 김시우의 서재에서 흘러나왔다는것을 알고는 수령님과 총관에게 력사교원을 보내여 야단을 했다.

력사교원은 김시우에게 화성의숙의 사업을 잘 도와주어야 할 총관이 학생들이 좌익서적을 읽는것을 보고도 막지 않는것은 총관답지 못한 처사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그런 책을 읽지 못하도록 단속해달라고 하였으며 수령님께도 조심하는것이 좋겠다고 위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교당국의 처사에 격분해하시였다.

《사람이 건전한 인격을 갖추려면 다면적인 지식을 섭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당국은 어째서 새것을 한창 섭취해야 할 청년들에게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선진사상을 연구할 권리마저 빼앗습니까. 맑스나 레닌의 저작들이 보통책방에까지 흘러나와 글을 아는 사람이면 다 읽는 판인데 유독 화성의숙에서만은 어째서 그런 책들을 못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화성의숙에 대한 불만을 터놓으시며 김시우에게 들이대시였다.

그러자 김시우는 한숨을 쉬면서 정의부의 시책이고 학교당국의 방침이니 자기 재간으로는 어쩌지 못하겠다고 고백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은 학교안에 맑스-레닌주의를 탐구하는 패가 있다는것을 감촉하게 되였다.

화성의숙에서는 학교운영자금의 부족때문에도 많은 곤난을 겪고있었다.

그래서 화성의숙당국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학교운영자금모연공작에 주기적으로 동원시키였다.

한번은 최동오숙장이 겨울나이준비를 위한 자금을 해결하려고 정의부본부에 숙감을 파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숙감은 빈손으로 학교에 돌아와 3중대장을 나쁜 놈이라고 욕하였다.

화성의숙에 주려고 내놓았던 돈을 3중대장이 먼저 가로채가지고 가서 자기의 결혼식비용으로 몽땅 써버렸다는것이였다.

그가 어찌나 돈을 물쓰듯 했던지 며칠을 두고 온 동네를 다 먹이고도 음식이 남아 이웃동리사람들까지 불러다 먹이였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분격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그 돈은 백성들이 죽을 먹고 끼니를 건느면서도 나라를 찾아달라고 푼전을 모아 군자금으로 바친 돈이였다.

돈이 없으면 짚신을 삼아 팔아서라도 군자금을 내고서야 마음을 놓는 조선인민이였다.

총을 잡고 적과 혈전을 벌려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는 지휘관이 그러한 탐오행위를 거리낌없이 하였다는것은 독립군의 상층이 변질되여가고있다는 하나의 증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성의숙에서 공부하시던 나날 독립군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운동일반에 대한 실망과 함께 날이 갈수록 화성의숙의 교육에 대한 환멸이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나는것을 느끼시였다.

화성의숙의 제한성은 민족주의운동자체의 제한성을 그대로 말해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속에서는 점차 화성의숙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화성의숙의 중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열심히 탐독하시면서 고전에 나오는 혁명의 원리들을 조선의 현실과 결부시켜 깊이 연구하시였다.

이 과정에 세력다툼과 파쟁, 사대와 교조로 얼룩진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하시고 이와는 다른 길, 새로운 투쟁의 길을 찾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잘사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것을 확신하시고 마침내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새 세대 열혈청년들로 1926년 10월 17일에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 《ㅌ. ㄷ》)을 결성하시였다.

《ㅌ. ㄷ》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으며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성의숙이 광활한 무대에로 나가 《ㅌ. ㄷ》의 결성으로 첫걸음을 뗀 혁명운동을 더 높은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벌려나가시려는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킬수 없으며 자신께서도 독립군인재양성을 사명으로 하는 화성의숙이 바라는 학생으로만 될수 없다는것을 확신하시였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숙을 중퇴하시게 된 기본리유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길림에 가서 중학교를 다니실 결심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숙에 오는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해주었던 김시우총관은 몹시 섭섭해하였지만 종당에는 대범하게 리해하여주었다.

그러나 최동오숙장과의 작별은 참기 어려운 괴로움을 동반하였다. 그는 노여움을 타면서 한참동안이나 수령님께 섭섭한 말을 하였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나 최동오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과 평양에서 감격적인 해후를 하였다.

그는 수령님께 《결국 그때 성주수상이 정당했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길림에 가서 청년학생들속에 들어갈 용단을 내린것이 정당한 처신이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화성의숙을 제때에 떠나지 않고 그 울타리속에서 맴돌았더라면 그 이후 조선혁명을 급속한 앙양에로 승화시킨 모든 공정들이 그만큼 지연되였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6년 12월초 《ㅌ. ㄷ》성원들과 후날 길림에서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시고 화전을 떠나시였다.

어머님의 당부

무송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댁안팎은 수십명의 어른들과 녀인들, 아이들로 꽉 들어찼다.

《아드님이 중학공부를 하러 간다니 기쁘시겠습니다.》

《성주가 공부하러 떠난다니 무송에 사는 우리들의 경사입니다.》

반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숙으로 떠나실 때도 그러하였지만 길림으로 가시는 그이를 바래우면서 마을사람들은 마치 제 자식이 공부하러 떠나는것처럼 대견함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어떤 녀인들은 그 어떤 섭섭함이 가슴을 파고들어서인지 저고리고름을 눈굽에 가져다대며 소리없이 흐느끼기도 하였다.

더우기 수령님과 남달리 가까웠던 장울화는 리별의 시각이 점점 가까와오자 눈물이 글썽해있더니 어느새 두볼로 흘러내리는것이였다.

새날소년동맹성원들도 위대한 수령님과 헤여지는것이 못내 서운하여 그이의 길떠날 차비를 도와드리면서도 시무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배웅하러 온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시고나서 어머님께 추운데 밖으로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하시였다.

《아무리 추운들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겠느냐. 내 걱정은 말아라.》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슴이 뜨거워오시는듯 어머님을 바라보시였다.

처음에 어머님께서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 대단히 심각해지시였다.

그러나 중퇴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으시고는 마음이 놓이시는듯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네가 학비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는데 사람이 돈때문에 주접이 들면 아무 일도 못한다. 학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댈테니 너는 그저 품었던 뜻을 꼭 이루어라. 이왕 새 길을 가려고 결심한바에는 걸음을 걸어도 큼직하게 걸어라.》

어머님의 말씀은 새로운 포부를 품고 무송에 돌아오신 수령님을 크게 고무하였다.

어머님과 함께 어른들과 아이들도 수령님을 따라나섰다.

북문밖 고개마루까지 따라나오신 어머님께서는 수령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좋은 동지를 얻기 위해 사람 볼줄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명심해라. 사람이 큰일을 하자면 대담하기도 해야 하지만 매사에 심중해야 한다. …》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인젠 들어가십시오. 동생들을 데리고 불편하신 몸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부디 몸성히 계십시오.》

어머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금 당부하시였다.

《내 걱정은 말아라. 네가 몸편하고 공부를 잘하면 내게 무슨 고생이 있겠니. 사나이 열여섯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다. 품은 뜻을 굽히지 말고 꼭 성공하여라.》

그러시고는 빨리 길을 떠나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하신 음성으로 **《어머님, 몸편히 계십시오.》**라고 인사를 올리신 후 말파리를 따라 걸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멀어져가는 아드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도록 한자리에서 떠날줄 모르시였다.

어머님의 웅심깊은 당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으로 새로운 투쟁의 활무대를 넓혀나가실수 있게 한 크나큰 힘과 의지의 원천이였다.

길 림 행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송에서 한달가량 머무르시다가 이듬해인 1927년 1월 중순에 길림으로 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으로 가실 때 김시우는 김사헌선생앞으로 수령님께서 길림에 가면 학교에 입학시켜달라는 소개신을 담은 편지를 써주었다.

당시 길림은 중국의 한개 성소재지로서 장춘, 할빈과 더불어 만주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의 하나였다.

길림은 만주지방에서 조선의 반일독립운동자들과 혁명가들이 많이 모여드는 중요한 정치적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이런 리유로 하여 길림은 《제2상해》라고 불리우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새것을 지향하고 진리를 찾아 모대기는 청년학생들도 길림으로 찾아왔다.

길림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일먼저 찾으신 곳은 오동진의 집이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은 은근히 긴장되시였다.

아버님의 친구들이 모처럼 주선해준 화성의숙을 중퇴한것때문에 오사령이 못마땅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오동진은 이전과 다름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반갑게 대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길림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오동진은 한동안 아무말도 하지 않고 심중한 표정으로 머리만 끄떡이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소문도 없이 길림에 불쑥 나타난 너를 보니 너의 아버지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아버지도 숭실중학교를 그렇게 갑자기 중퇴하셨더랬지. 나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여간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퍽 이후에는 아버지가 결심을 옳게 하셨다고 생각하였다. 아무튼 여섯달만에 의숙을 포기하고 길림으로 온 그 결단성이 놀랍다. 길림이 리상에 맞는 고장이라면 여기서 너의 우물을 파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동진다운 활달한 사고방식이 엿보이는 그의 말에 고마운 생각을 금치 못하시였다.

길림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화전에 있는 김시우총관이 보낸 부탁편지를 받은 김사헌을 비롯한 독립운동자들은 수령님께 길림 육문중학교에서 공부하실것을 권고하며 그이께서 육문중학교에 입학하실수 있도록 각방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길림육문중학교는 시내의 신흥사회계에서 세운 사립학교인데 길림에서는 그중 경향성이 좋은 학교였다.

자금문제와 교장의 직권람용문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육문중학교에서는 교장이 자주 교체되였는데 교장을 네번이나 갈아치운것만 보아도 육문중학교가 정의와 법도를 얼마나 중시하는 학원인가 하는것을 알수 있었다.

육문중학교의 이 혁신적인 교풍은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을 끌어당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친구분들의 소개로 길림육문중학교의 리광한교장을 만나시였다.

교장은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 학교를 졸업하면 장차 어떤 일을 할 생각인가고 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를 찾는 일에 한몸 바치고싶다고 서슴없이 대답하시였다.

그러자 그는 아주 좋은 포부라고 긍정해주었다. 그리고는 1학년을 거치지 않고 2학년에서 공부하게 해달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요구도 쾌히 들어주었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육문중학교에 입학하시였다.

그무렵에 《ㅌ. ㄷ》의 몇몇 성원들도 화전에서 수령님과 약속한대로 이곳에 와서 문광중학교를 비롯한 시내 학교들과 기관구, 선창 등에 적을 붙이였다.

길림과 같이 복잡한 도시에서 얼마 되지 않는 핵심들을 가지고 《ㅌ. ㄷ》의 리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운다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각자가 한점의 불씨가 되여 주변의 열사람, 백사람을 불러일으키고 그 백사람이 다시 천사람, 만사람의 심장을 달구어 세계를 변혁할 굳은 결심에 차넘치고있었다.

이때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육문중학교에 적을 두시고 혁명활동을 벌리기 시작하시였다.

2. 달라진 풍조

선진사상의 탐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으로 오실 때 화전에서 시작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탐구를 본격적으로 더 깊이 해보실 결심을 하시였다.

당시의 중국은 대혁명시기여서 쏘련이나 일본에서 발간되는 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출판하였다.

베이징에서는 《번역월간》이라는 잡지도 찍어냈는데 거기에 청년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진보적인 문학작품들이 자주 실리였다.

무송이나 화전에서 볼수 없었던 책도 길림에서는 얼마든지 구할수 있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는 책을 살만 한 돈이 없는것이 문제였다.

그때 우마항거리의 도서관에서는 한달에 열람료를 10전씩 받았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열람권을 달마다 떼가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도서관에 들려 몇시간씩 책과 신문을 읽군 하시였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여러가지 출판물들을 볼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책방에 좋은 책이 들어온것을 보면서도 돈이 없어 못살 때에는 부자집 학생들을 부추겨 사게 하고 그들이 사온 다음 그 책들을 빌려다보군 하시였다.

선진적인 서적이 많이 나돌고 새것을 지향하며 진리를 찾아 모대기는 청년학생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길림의 사회정치적분위기는

새 사조를 더 깊이 파고들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였다.

그 시기 육문중학교에서는 학교관리를 민주주의적으로 하였다.

도서주임도 반년에 한번씩 학생총회에서 선출하였다.

선출된 도서주임은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세우고 책을 사들일 권한을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육문중학교시절에 두번이나 도서주임으로 선거되시였는데 그 기회를 리용하여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책들을 많이 마련하시고 책을 읽으시며 선진사상을 탐구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에 대한 학습에 열중하시면서 맑스-레닌주의고전들인 《공산당선언》, 《자본론》, 《국가와 혁명》, 《임금로동과 자본》을 비롯하여 그를 해설한 도서들을 조선혁명의 구체적실천과 결부하여 탐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서적들과 함께 혁명적인 문학작품들도 많이 읽으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일 흥미를 가지고 읽으신것은 고리끼와 로신의 작품들이였다.

그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어머니》, 《철의 흐름》, 《축복》, 《압록강가에서》, 《소년방랑자》와 같은 혁명적인 소설들과 당시의 현실생활을 담은 진보적인 소설들을 많이 읽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서시간을 1분1초라도 더 얻어내기 위하여 애를 쓰시면서 차례진 시간안에 하나라도 더 많은 책을 읽고 그 본질을 깊이 알기 위하여 노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디서 무슨 책을 보건 항상 어떻게 하면 일제를 물리치고 나라를 찾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고 근로하는 인민들을 잘살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시였다.

침식을 잊으시고 몇권의 책을 련이어 읽으시는 때도 있었고 혁명리론의 진수와 본질을 파악할 때까지 며칠씩 사색과 연구를 거듭하실 때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교조로가 아니라 실천의 무기로 대하게 되고 진리의 기준을 추상적인 리론에서가 아니라 항상 조선혁명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찾으려는 립장을 가지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에서 과학적학설로서의 맑스-레닌주의를 리해하시게 되였으며 그 학설의 도움으로 조선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실천적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진사상의 탐구과정을 통하여 길림시절에 터득한 교훈으로부터 생전에 늘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라고 강조하시며 이렇게 회고하시였다.

《길림시절에 나의 세계관이 확립되고 드팀없는것으로 굳어졌으며 그것이 내 한생의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였다.

길림에서의 축적과 체험은 그후 나로 하여금 자주적인 혁명사상의 골격을 세울수 있게 하였다.》

비밀독서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맑스와 레닌의 저서들을 널리 탐독하고 거기에 깊이 심취될수록 그 혁명학설을 청년학생들속에 한시바삐 보급해야겠다는 충동을 가지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뜻이 통하는 몇몇 동무들로 먼저 육문중학교안에 비밀독서조를 조직하시였다.

비밀독서조는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을 맑스-레닌주의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을 사명과 목적으로 하였다.

독서조에서는 모든 성원들이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깊이 학습한 다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들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서조성원들이 맑스-레닌주의를 단순히 리론

으로만 연구할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산 리론으로 체득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육문중학교 비밀독서조의 조직운영경험과 성과에 토대하여 다른 학교들에도 비밀독서조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얼마후에 문광중학교와 제1중학교, 제5중학교, 녀자중학교, 사범학교를 비롯한 길림시내의 여러 학교들에 비밀독서조들이 조직되고 거기에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망라되게 되였으며 그 운영이 활발해지게 되였다.

선진사상을 처음으로 배우게 된 비밀독서조성원들의 학습열의는 매우 높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속에서 선진사상을 배우려는 열의가 날로 높아감에 따라 비밀독서조들의 역할을 한층 높이는 한편 더 많은 사람들속에 선진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독립운동자들이 경영하는 정미소의 방 한칸을 얻어 자체로 자그마한 도서실을 꾸리고 운영하도록 하시였다.

사실 그때 학생들이 맨주먹밖에 없는 조건에서 자체의 힘으로 도서실을 꾸린다는것이 쉬운 일은 아니였다.

책도 사오고 서가도 매고 책걸상도 갖추어놓아야 하겠는데 돈이 없는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철도공사장에 가서 침목을 메나르거나 강가에서 자갈을 져나르는것 같은 삯일을 하였다.

녀학생들은 정미소에 가서 쌀의 뉘를 골랐다. 이렇게 한푼두푼 힘들게 번 돈으로 책을 사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인 책들을 따로 보관할수 있는 비밀서가까지 갖추어 도서실을 꾸려놓은 다음 간단하면서도 구수하게 책소개를 써서 시내의 여러곳에 붙여놓게 하시였다.

그러자 학생들이 앞을 다투어 그 도서실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끌기 위하여 도서실에 련애소설도 가져다놓았다.

청년들은 련애소설들을 읽는 멋에 도서실출입을 많이 하였다.

그런 식으로 책에 맛을 붙이게 해놓고는 사회과학책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사회과학책들을 보면서 점차 각성되면 그때에는 비밀서고에서 맑스-레닌주의고전들과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꺼내주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청년학생들의 의식수준에 맞게 학자, 교원들을 초청하여 흥미있는 자연과학강연을 조직하시거나 독서발표회, 토론회, 웅변대회를 마련하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진사상을 보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론회와 웅변대회들에서 《제국주의의 본질과 그 기본모순에 대하여》, 《우리는 조선혁명을 어떻게 할것인가?》, 《조선혁명의 현단계》 등 조선혁명의 당면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내놓고 광범한 론쟁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광범한 청년학생들이 선진사상으로 무장되여갔으며 그들의 혁명의식은 빨리 높아지게 되였다.

다양한 생활분위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해주신 조선인길림소년회와 조선인류길학우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부터 길림시안의 풍조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이미 소년회안에는 조직부와 선전부, 문화체육부와 같은 부서들이 나왔고 학교와 지역별로 되는 반도 조직되여있었다.

조직부에서는 소년회의 강령, 규약을 학습시키고 소년회 반들에서 주간사업과 성격검토회를 잘하도록 하였으며 선전부에서는 학습회, 강연회, 웅변대회, 독서발표회 등 다양한 사업을 조직하고 각종 교양자료를 등사하여 배포하였다.

그때 등사배포한 교양자료로서는 일제의 침략책동과 조선인민들의 생활처지, 조선의 명인들에 대한 소개, 학습과 소년회생활에서 모범적인 동무들에 대한 소개 등을 쓴 글들이였다.

다양하게 만든 교양자료들은 중학생들이 원고를 쓰고 등사기에 밀어서 길림소년회는 물론 무송, 장춘 등지에도 보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체육대회, 등산놀이, 야유회, 선전대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조직하였다.

소년회와 학우회의 활동으로 청소년학생들의 일과생활부터 몰라보게 변하였다.

소년회와 학우회에 망라된 청소년들은 아침마다 지구별로 조기회도 하였다.

또한 일요일에는 대렬을 지어 북산에도 가고 가창행진도 하였으며 북산밑에 있는 운동장에서 체육경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해 5월 첫주 일요일을 《소년회날》로 정하고 이날에 길림시내의 조선인청소년들과 그 부형들, 유지들과 독립운동자들이 참가하는 운동회도 열어 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년회와 학우회가 청소년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룡담산원족과 강남공원야유회도 조직하고 북산과 같은 유원지나 문화유적들에 대한 참관과 답사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강남공원과 북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시절에 비밀활동장소로 많이 리용하신 곳이였다.

강남공원은 아름답게 생긴 송화강상의 섬이였다. 길림의 자본가들은 이곳에 나무를 많이 심어 섬을 식물원과 같이 수려하게 꾸리고 입장료까지 받아먹으면서 돈벌이를 하였다.

이 공원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야유회의 간판을 가진 비밀회의를 많이 조직하시였다.

그러나 초목이 무성한 여름철을 위주로 리용하던 강남공원에 비하여 계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시장철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는 북산은 더 리상적인 밀회장소였다.

북산에는 약왕묘와 같은 명승고적도 있었는데 이 약왕묘지하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밀회합을 자주 조직하실 때 리용하신 전용회의실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년회와 학우회로 하여금 청소년들속에서 강연회, 토론회, 학습회, 웅변대회, 독서발표회, 노래보급, 연예공연과 같은 과외활동도 많이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당시 길림에서 진행된 토론회나 독서발표회에서는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론의되였다.

소년회와 학우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길림시안의 조선청소년학생들의 생활은 급격히 달라져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늘 환희와 기쁨이 넘쳐났다.

청소년들모두가 공부를 잘하고 례절도 바르고 서로 협조하고 단결하는 기풍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청소년들을 단결시킨 다음 그들을 대중을 교양하고 계몽시키는 사업에 적극 참가시키시였다.

열살안팎의 소년회원들까지도 방학이면 강동, 륙대문, 신안툰, 대황구와 같은 주변농촌마을들에 나가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계몽하였다.

대답 못한 연사

1927년 2월 14일이였다.

이날 조양문밖에 있는 대동공창에서는 상해림시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있던 독립운동의 원로 안창호의 강연이 진행되였다.

당시 독립운동자들은 안창호의 행각이 독립운동에 좋은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을것이고 새 사조에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청년학생들을 저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수 있을것처럼 생각하면서 그의 강연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있었다. 그러기에 독립운동자들은 길림에

온 안창호를 마치 《대통령》이나 온것처럼 떠받들었다.

그의 도착과 때를 같이하여 길림에 사는 조선사람들속에서는 《웅변가》로 명성높은 안창호의 《시국대강연》이 있게 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강연회장은 수많은 독립운동자들과 유지들 그리고 길림에 있는 조선인상공업자들, 청년학생들로 꽉 찼다.

그날 안창호는《조선민족운동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소문처럼 연설을 잘하였다.

그의 류창한 언변은 처음부터 군중의 찬탄을 자아냈다.

안창호가 동서고금의 력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섞어가며 조선민족의 출로에 대한 주장을 력설할 때 장내에서는 요란한 박수소리가 연방 터져올랐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였다.

조선민족주의운동의 과거사를 개괄하고 난 그는 조선독립의 밑천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강대국들에서 차관을 얻어다 경박호에 수력공업을 건설하고 만주에 있는 조선사람들의 농업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일본제국주의군사적강점하에서 교육과 상업의 진흥에 의한 민족의 실력배양이니, 이 힘의 준비야말로 독립목적달성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소리를 하였다.

그런가 하면 조선민족은 세계에서 정신적자질이 가장 낮은 민족이기때문에 역겹더라도 이것을 자인하고 각자가 자기를 수양하고 인격을 높이며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는데 매진하자고 목청을 돋구어 역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발언에서 민중의 투쟁의욕을 거세할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실망하시였다.

각자가 자기를 수양하고 인격을 높이며 그에 토대하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동감이시였지만 조선민족을 세계적으로 정신적자질이 가장 낮은 민족이라고 한 그의 견해와 실력양성을 위한 개량주의적방법론에는 도저히 찬성할수가 없으시였다.

실력양성은 어디까지나 독립투쟁을 추진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되여야지 그자체가 혁명전체를 대신할수는 없었다.

그런데 안창호는 독립투쟁을 실력양성으로 대신하려고 하였다.

실력이 양성된다고 하여 독립투쟁이 저절로 진척되는것은 아닌데 그는 민족의 력량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것을 종국적인 승리의 길로 어떻게 동원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만주에서 독립의 기초로 될수 있는 산업을 진흥시킨다는것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

국권을 잃은 민족에게 발전소를 건설하라고 차관을 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고 온 강토가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갔는데 설사 렬강들이 차관을 준다 하여도 이국땅에서 어떻게 발전소를 세우고 벼농사를 착실하게 할수 있으며 또 일제가 조선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만 내버려두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연을 듣다못해 더 참지 못하고 안창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이에 써서 들이대시였다.

《- 산업과 교육을 진흥시켜 조선민족의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라를 일제놈들에게 통채로 빼앗긴 조건에서 그것이 이루어질수 있는가?

- 우리 민족을 정신수양이 낮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그러한가?

- 연사가 말하는 렬강이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인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그들의 〈원조〉에 의해서 독립을 가져올수 있는가?》

질문쪽지는 앞에 앉은 학생들과 사회자를 거쳐 안창호에게 전달되였다.

안창호는 쪽지의 글을 한참동안 보고나서 사회자에게 질문쪽지에 김성주라는 서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아는가고 물었다.

그리고는 조금전까지 거침없이 펼쳐나가던 강연을 성급하게 마무리짓고 연탁앞에서 황황히 물러섰다.

후날 안창호는 동료들에게 자기가 미국과 하와이, 상해, 만주 등 각지 조선인거주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강연을 하였지만 이런 질문을 받아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질문을 제기한 학생의 식견이 놀라리만큼 뛰여나다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젊은 세대들이 보는 견해가 이렇듯 예리한데 자기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도 줄수 없는것이 민망스럽다고 하였다.

강연으로 결속된 토론회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 오신 다음 길림시안의 학생들속에서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그들속에서 사회정치서적을 탐독하고 집체적으로 토론하는 새로운 풍조가 생겨난것이였다.

하지만 사회정치적문제에 림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각자의 가정환경이나 처지에 따라 서로 각이하였다.

학생들의 이러한 사상동향은 주로 토론회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군 하였다.

한번은 학생들이 《조선독립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가진적이 있었다.

이날 많은 학생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는데 그들가운데는 조선은 약소국이기때문에 강대국의 《원조》를 받아 실력을 배양한 다음 일본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안창호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조선사람모두가 들고일어나 안중근처럼 일본놈들을 한놈씩 잡아죽이면 독립을 쟁취할수 있다고 열변을 토하였고 또 어떤 학생들은 우리가 아무리 독립이요, 광복이요 해야 다 소용없는 일이므로 앞으로 밥벌이에 지장이 없도록 공부에 전심하는것이 제일이라고 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론은 더욱 열기를 띠고 진행되였지만 도무지

어느 주장이 옳은지 분간할수가 없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은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도 서로 옥신각신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정도목사의 례배당에서 강연을 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러 기회에 수령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던 길림시안의 학생들이 커다란 호기심을 가지고 강연회장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학생들의 선망어린 눈길을 받으며 연단에 나서신 수령님께서는 오늘 강연에서는 특별한 제목을 달지 않고 그저 다같이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최근 학생들속에서 론의되고있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창호가 강연에서 조선독립을 이룩하자면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경제를 개발하며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절대로 불가능한것이며 따라서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마저 빼앗긴 식민지노예로 되였다. 온 강토가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갔는데 설사 렬강들이 《차관》을 준다 하더라도 이국땅에서 어떻게 지하자원을 캐내고 공장을 세워 생산을 할수 있으며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잃은 조선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겠는가. 그리고 간악무도한 일제가 조선사람들이 독립운동의 힘을 키울 때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을것 같은가. 결국 경제를 건설하고 실력을 배양하여 독립운동의 힘을 키우겠다는것은 허황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 …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안창호가 강연에서 조선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정신수양이 낮은 민족》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인민의 슬기롭고 용감한 애국정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시면서 조선인민이 임진조국전쟁과 그후 반일의병투쟁, 3.1인민봉기, 6.10만세시위투쟁 등에서

발휘한 반일애국정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조선인민의 이러한 투쟁을 허무적으로 대할것이 아니라 민족적긍지를 가지고 자랑하여야 하며 지난날의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할수 없었던 피의 교훈을 정확히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반일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지 못한것은 조선민족이 정신수양이 낮은 민족이기때문인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대한 옳바른 로선과 방책이 없었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할줄 아는 사람이 없었기때문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지금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지난날의 투쟁에서 교훈을 찾고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독립운동을 벌릴 대신 렬강들의 힘을 빌어 나라의 독립을 구걸하려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자면 인민대중에게 옳바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해주고 그들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워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순간 장내는 요란한 박수와 환호로 들끓었다.

학생들은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며칠동안 론쟁하던 문제들이 이 자리에서 다 풀리는구만.》

《이제야 우리들이 나갈 길을 똑똑히 알게 되였소.》

결국 며칠을 두고 갑론을박하던 학생들의 토론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단 한번의 강연으로 결속되였다.

남의 덕은 망상

어느날 길림에는 《맑스주의대가》라고 자처하는 안광천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난적이 있었다.

그로 말하면 한때 엠엘계공산당의 중요직책에서 일을 한적도 있어

자존심이 이만저만 높지 않은 소문난 리론가였다.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그를 만나면 혁명활동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을 들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가닥 기대를 품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그를 찾아갔다.

청년학생들속에 세력을 뻗치려던 안광천은 많은 학생들이 숙소에까지 찾아오자 자기의 유식을 뽐내며 연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처음부터 그의 입에서는 멋들어진 소리들이 흘러나왔고 모두들 그의 언변술에 감탄하였다.

그런데 그 감탄은 얼마 못가 한탄으로 뒤바뀌고말았다.

그가 대중투쟁을 무시하는 망발을 거리낌없이 뇌까리였기때문이였다.

그는 국제당이나 큰 나라의 힘을 빌면 대중투쟁이 없이도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조선과 같이 작은 나라는 대중투쟁을 하느라고 헛되게 피를 흘릴것이 아니라 큰 나라의 덕으로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들이대시였다.

그러시면서 선생님은 대중투쟁을 얕보면서 공산당은 왜 조직했고 공산주의운동은 왜 하는가, 이 길림에 와서 사람들에게 혁명에 궐기하라고 부르짖는것은 또 무엇때문인가고 반문하시였다.

뜻밖의 질문을 받은 안광천은 금시 말허리를 뚝 끊었다.

대답을 찾지 못해 갑자르기만 하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중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워 투쟁에로 불러일으켜야지 몇사람 안되는 공산당지도부를 가지고서는 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고, 자기 인민을 믿지 않고 남의 덕에 독립을 이룩해보려는것은 망상이라고 론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말문이 막힌 안광천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헤덤비다가 그런걸 리해하려면 쓴맛단맛을 다 보아야 한다는 행방없는 소리를 남기고 황급히 사라지고말았다.

연예공연의 지도자

1927년 봄 어느날 연예선전대원들은 손정도목사의 례배당에 모여 어느 한 연극의 연기연습을 하고있었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몇명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서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연예선전대원들에게 동무들의 연극연습을 한번 보러 나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곧 연극연습이 다시 시작되였다.

막이 열리자 경상도에서 살던 한 농민이 일제와 지주놈의 억압과 착취에 못이겨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살길을 찾아 북간도로 가는 모습이 펼쳐진다.

북간도에 간 그 농민은 부대기를 일궈 한해농사를 부지런히 짓는다.

그런데 가을이 되자 지주놈이 나타나서 제놈의 땅을 허가도 받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한알도 다치지 못한다고 야단을 친다.

농민은 지주놈의 악랄한 처사에 대항하여나선다. 그러나 그는 지주놈에게 죽도록 매만 맞고 땀흘려 지은 곡식을 몽땅 빼앗기고만다.

울분에 찬 농민은 그날 밤 지주놈의 집에 불을 지르고 투쟁의 길을 찾아 떠나는것으로 막이 내린다.

연습이 끝나자 수령님께서는 짧은 시일안에 연습을 많이 하였다고 하시면서 연극의 내용과 연기형상에서 나타난 부족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연극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연극의 마지막부분에서 농민과 지주놈을 일대일로만 대치시키는것으로 되여있는데 그렇게 하면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 착취사회에서는 지주와 경찰이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그러므로 농민에 대한 지주놈의

착취행위를 경찰놈들이 총칼로 비호해나서는것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연극을 통하여 두가지 사상을 대중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하나는 일제와 지주놈이 있는 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어디에 가나 살 곳이 없다는것, 다른 하나는 무권리한 농민들도 한데 뭉쳐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안겨주는것이다. 그리고 농민이 지주놈의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것으로 하지 말고 같은 처지에 있는 농민들을 묶어세워 일제와 지주놈과 맞서 소작쟁의를 벌려 승리하는것으로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 연예선전대원들의 연기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고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연예공연을 하는 목적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연예공연은 단순히 사람들의 인기나 호기심을 끌게 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예공연을 통하여 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자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대중을 교양하는 선전자라는 영예감을 깊이 명심하고 자기가 맡은 연기를 책임적으로 잘하여 대중을 투쟁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그후 수령님의 지도밑에 완성된 연극은 사람들의 절찬을 받았다.

당시의 연예공연이 얼마나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던지 연예선전대에 대한 소문은 길림시내뿐아니라 중부만주일대에도 널리 퍼져갔다.

한번은 장춘에서 려관업을 하고있는 허씨라는 사람이 길림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일전에 길림학생들이 장춘에 와서 연예공연을 하였는데 장춘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에게 깊은 충동을 주었소. 조선사람들이 모두 단합하여 일제와 맞서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내용이였는데 그 지도를 누가 하였는지 난 정말 큰 감명을 받았소.》

이때 옆에 있던 친구의 아들이 자기들의 연예공연을 지도하시는 분은 바로 길림시안의 조선청소년들을 이끄시는 김성주선생님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장춘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이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장춘에 사는 조선사람들은 전번에 한 연예공연을 보고 모두가 암담하던 조선에 나라를 건지실 위인이 나타났다고 말하고있소.》

친히 조직하신 국어강습

1927년 8월초에 있은 일이다.

당시 길림에 사는 많은 조선소년들은 중국인소학교에 다니는 관계로 조선글을 배우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다보니 적지 않은 소년들이 조선글을 잘 모르고있었다.

게다가 그 소년들의 대다수는 출생지가 만주였다.

만주에서 태여난 소년들은 조선말보다 중국말을 더 잘하였다.

이러한 실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해 여름방학을 리용하여 국어강습을 조직하시였다.

국어강습에는 중국인소학교에 다니는 조선인길림소년회원들을 비롯하여 조선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다 참가시키였다.

강습이 시작된 첫날이였다.

중국인소학교에 다니던 소년회원들은 강습을 받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가지고 손목사네 례배당강당으로 갔다.

강습장소에는 소년회원들뿐아니라 김원우, 계영춘, 박소심 등 혁명조직성원들과 류길학우회성원들도 와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원우, 계영춘, 박소심 등 혁명조직성원들을 강습회에 출연할 강사로 임명해주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강의에 출연할 교원이란 따로 없었다.

조직의 모든 핵심들이 다 교원이였고 강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습기간 학습과 생활에서 지켜야 할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뒤이어 첫날 강습이 시작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몸소 첫 강의에 출연하시여 활달한 필치로 **《백두산》**, **《압록강》**이라는 단어를 칠판에 큼직하게 써놓으시고 조선의 말과 글의 우월성과 아름다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감명깊게 들려주시였다.

다음날부터 국어강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임명해주신 강사들이 출연하였다.

20여일동안 강습을 하고나니 여기에 참가했던 소년들이 누구나 다 당시 발간되던 어린이잡지를 볼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그때 강습에 참가한 소년들 대부분은 조선글을 처음 배우는 소년들이였다.

방학이 거의 끝나갈무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년회원들의 학습정형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강습장소로 나오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년들의 학습정형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그동안 몰라보게 발전하였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새로운 《당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혁명사상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당수》라는 방법도 리용하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교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북산공원에서 소경주위에 숱한 사람들이 모여앉아 이야기를 듣고있는것을 보시였다.

소경은 넉두리같은것을 해가며 《삼국지》의 한 대목을 뜯금으로 엮어대고있었는데 제갈량이 꾀를 써서 적진을 일격에 무찌르고 들어가는 장면 같은데서는 북까지 치면서 흥을 돋구었다.

그러다가 재미나는 대목에 이르러 이야기를 뚝 그치더니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고 손을 내밀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이 공원 같은데서 《삼국지》나

《서유기》같은 소설을 감정을 잡아 소리내여 읽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내였는데 이것을 《당수》라고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소경의 주위에 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것을 보시며 우리도 저런 식으로 군중을 끌어당기고 혁명사상을 보급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가운데서 우스개도 잘하고 말주변도 좋은 한 동무를 선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학생에게 《당수》를 해보라고 과업을 주시였는데 성경책을 외울 때보다 더 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학생외에도 여러명의 학생에게도 같은 과업을 주어 준비시키시였다.

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실방과 공원에 가서 《축복》이나 《철의 흐름》과 같은 내용이 좋은 소설들을 뜨금으로 구수하게 엮어대자 그들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매번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그들은 재미나는 대목에 가서는 이야기를 끊고 한바탕 혁명적인 내용의 선동연설을 한 다음 래일 어느 시간에 다음대목을 또 들어보라고 하였다.

그러면 다음날 사람들이 소설을 마저 들으려고 약속된 장소에 모이군 하였다.

모여온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중국사람들이 하는것과 같은 《당수》인가 생각하였다.

그런데 조금 서서 보니 그것은 중국사람들이 하는 《당수》와 같은 것이 아니였다.

한 학생은 《삼국지》와 같은 옛책을 읽는것이 아니라 그때 진보적인 책이라고 불리우던 《축복》이라는 소설을 읽고있었으며 한참 읽다가는 자기 말로 착취사회에 대하여 비판하는 선전사업을 하는것이였다.

주위에 선 사람들모두가 그의 말에 심취되여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하도 신기하여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쪽에서 또 한명의 학생이 사람들속에 에워싸여 《당수》아닌 《당수》를 하고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또 다른 저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가운데 《당수》를 하는것이 보였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게 무슨 바람이 불어도 되게 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며 이쪽저쪽 《당수》를 하는데로 가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학생들은 학생선전대를 무어가지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 이런 식으로 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길림시내뿐아니라 주변농촌지대에까지 나가 벌리는 학생들의 새로운 《당수》를 들으며 대중은 점차 계급적으로, 혁명적으로 각성되여 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착상하신 새로운 《당수》는 소경처럼 돈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신 더 큰것을 얻었다.

그것은 혁명의 기치아래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이였다.

처음 듣는 말

1928년 여름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륜에 오시여 혁명조직을 내오는 사업을 지도하실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는 꿈같은 소문이 돌았다.

《진명학교에서 입학금과 월사금을 한푼도 받지 않고 학생들을 공부시킨대.》

《그게 정말일가?》

마을청소년들속에서는 기쁨과 의혹이 어린 말들이 자주 오갔다.

어느날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마을의 한 청년이 찾아왔다.

그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 18살이 되도록 야학에나 좀 다녔을뿐 학교라고는 문앞에도 가보지 못한 청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밀어놓으시며 어서 들어오라고 그를 반겨맞아주시였다.

그는 이렇게 말씀올렸다.

《우리같이 가난한 농사군의 자식들을 돈 한푼 받지 않고 공부시켜준다는것이 정말입니까?》

《왜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긴 처음 듣는 말이니 곧이 들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가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있자 수령님께서는 진명학교에서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배우려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공부시킨다는것과 바쁜 농사철에 일손이 모자라는 집 어린이들은 집일을 도우면서 공부할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공부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배움에 대한 절절한 갈망이 담겨져있는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동무처럼 나이들도록 공부를 못한 동무들을 학교에 받아들이기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고향은 어데이고 어떻게 되여 이곳으로 오게 되였으며 가정형편은 어떠한가 하는것을 차근차근 물으시였다.

그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난에 쪼들리여 배움의 길을 잃은 조선의 수많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절통한 심정을 헤아려보시는듯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한창 배워야 할 나이에 학교정문앞에도 가보지 못하였다고 하니 공부하고싶은 마음이 어찌 절절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나는 살길을 빼앗기고 배움의 길을 잃은 가난한 집 아이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고통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간악한 왜놈들을 조국강토에서 하루빨리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만약 우리들이 가만 있으면 억년 가도 망국노의 처지를

면할수 없다고, 그러므로 동무는 하나라도 더 많이 배우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여 왜놈들을 쳐부실 싸움마당에 나설 준비를 갖추어나가야 한다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처음 얼마동안은 좀 힘들수 있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애써 배우면 될것이라고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그는 그토록 소원하던 배움의 꿈을 실현하게 되였으며 진명학교를 마칠 때까지 돈 한푼 내지 않고 교과서와 연필, 학습장을 비롯한 학용품을 무료로 공급받으면서 마음껏 공부할수 있었다.

전용회의실

길림의 북산공원에는 약왕묘라는 명승고적이 있다.

약왕묘는 약신의 제사를 지내는 절당이라는 뜻이다.

약왕묘는 높이 쌓아올린 축대우에 기둥을 세우고 기와를 올린 집으로서 앞에는 커다란 궁륭식문이 있고 뒤에도 작은 문이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면 크지 않은 지하실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지하실에서 자주 중요한 비밀회의를 진행하군 하시였는데 그때를 회고하시며 길림의 약왕묘지하실은 우리의 전용회의실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교시하시였다.

나무가 우거진 북산의 안침된 곳에 자리잡고있어 조용하고 또 북산을 찾는 관광손님들도 자주 다니므로 약왕묘는 북산에 등산을 왔다가 잠시 들려본다는 위장으로 비밀모임을 하기에는 매우 안성맞춤한 곳이였다.

이처럼 유리한 약왕묘지하실을 비밀모임장소로 리용할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진정이 깃들어있다.

약왕묘에는 그곳을 관리하는 나이지숙한 중국인 중이 한사람 있었다.

그는 평시에 말수더구가 적었으며 늘 큰 비자루를 들고 뜰과 문밖을 쓸었다.

그런데 그는 북산에 온 청소년들을 그닥 달갑지 않게 여기고있었다.

그것은 등산을 오는 사람들중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주변을 많이 어지럽혀놓고 꽃나무를 꺾어놓거나 시설에 손상을 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한번은 한 소년회원이 머리우로 재롱을 피우며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새를 겨누어 크지 않은 돌 한개를 집어던진 일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돌이 약왕묘석벽에 부딪치고는 마침 그밑으로 지나가던 중의 발앞에 떨어졌다.

중은 놀라서 걸음을 멈추더니 소년회원들을 점도록 쏘아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년회원에게 약왕묘는 중국인민이 아끼는 오랜 문화유적의 하나이며 약왕묘를 관리하는 저 중도 그런 의미에서 애국자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를 찾아가 사죄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에게로 다가가시여 허리를 굽히시고 저희들이 그만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시면서 돌을 던진 소년회원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며칠후 북산에 가신 기회에 다시 약왕묘에 들리시여 중을 만나시고는 전번날에는 참 안됐다고 다시 사과를 하시였다.

그리고 며칠 안되지만 그사이에 또 우리 조선청소년들이 약왕묘에 와서 페를 끼친 일은 없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중은 일없다고, 이제는 학생의 마음을 알고도 남으니 그 이야기는 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자기도 그날 조선학생들에게 지나치게 행동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중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알고보니 중은 원래 가문이나 교직으로 봐서는 그 일을 맡아할 사람이 아닌데 몇해전에 선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약왕묘를 부탁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이였다.

중은 그 대가로 얼마간의 교비를 받고있었지만 그것은 고작 생계나

겨우 유지할 정도의 적은것이였다.

그는 약왕묘를 뜰 결심을 여러번 하였지만 부친의 부탁을 다시 생각하고 또 누구든 중국의 문화재보를 지키는 사람이야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럭저럭 맡은 일을 해오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에게 앞으로는 성심성의로 일을 돕겠다고 하시면서 장차 중국에서도 세상이 바뀌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날이 올것이라고 말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번 그 중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는 과정에 그가 매우 소박하고 량심적이며 일제와 그 주구들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것을 확신하고 더욱 진지하게 혁명적인 영향을 주시였다.

이 과정에 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약왕묘지하실을 비밀회의장소로 리용하시겠다는 말씀에 순응하여 그이의 사업을 적극 도와나서기까지 하였다.

그때로부터 여러달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약왕묘지하실에서 시내 각 학교의 반제청년동맹지부 책임자들과 함께 중요한 비밀모임을 진행하고계시였다.

그런데 모임이 거의 끝나갈무렵 갑자기 지하실 문어구에서 누구인가 얼씬하더니 사다리밑으로 쪽지 하나가 떨어지는것이였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씌여있었다.

《지금 밖에 독군서관리, 성의회의원을 비롯하여 낯모를 사람들이 와있습니다. 다시 알릴 때까지 나오지 말아주시오.》

중이 보낸 편지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회의를 하실 때마다 중은 스스로 밖에서 망을 보았다.

후날 그 중은 자주 그때 일을 회억하면서 자식들과 사람들에게 **김일성**주석님은 대단히 인품이 높고 도량이 큰분이시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그분을 만나뵈웠던 일은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3. 뜨거운 인정미

남먼저 불길속에

1927년 봄 어느날이였다.

길림영화관은 수많은 관람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당시 길림에 하나밖에 없는 영화관인데다가 오래간만에 상영하는 영화여서인지 이날 영화관안은 사람들이 발디딜 자리조차 없이 꽉 들어찼다.

모두가 한창 재미나게 영화를 보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지붕에서 전기줄이 합선되면서 화재가 일어났다.

영화관은 삽시에 검은 연기속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좀처럼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고있는데 불길은 벌써 사람들이 범접할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타번졌다.

와지끈 하고 지붕까지 주저앉았다.

영화관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다들 주먹을 부르쥐고 발만 동동 구를뿐 선뜻 불길속에 뛰여들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바로 이때 몇몇 학생들과 함께 화재현장으로 달려오신 수령님께서는 모여선 사람들에게 아직 사람들이 불속에 있는데 왜들 보고만 있는가고 하시면서 주저없이 불길속에 뛰여들어가시였다.

사람들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위험하다고 소리쳤다.

뒤따라 함께 온 학생들도 들어갔다.

한초, 한초, 숨막히는 또 한초…

이윽고 수령님께서 먼저 불이 달린 사람 하나를 업고 나오시였다.

모두들 환성을 올리며 다가가 그이의 등에서 사람을 맞들어내리웠다.

수령님께서 또다시 불길속으로 들어가려 하시자 사람들이 그이의 앞을 막아나섰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한손으로 그들을 옆으로 제치시고 연기에 갈린 음성으로 이러지 말라고,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불길속으로 들어가시였다.

이렇게 하기를 그 몇번…

감동된 사람들중에서 젊은이들 몇이 또 그이를 따라 불길속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화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길속에서 구원되였다.

병구완도 해주시며

어느날 소년회사업을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무가 며칠째 소년회모임에 나오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아시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곧 한동무네 집을 찾으시여 그에게 왜 소년회모임에 나오지 못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한동무는 잠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있다가 겨우 어머니가 친정집으로 나들이를 가고 없는 때에 아버지가 앓아누워 나가지 못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못내 서운해하시며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는가고 하시면서 알아야 아버님의 병구완도 빨리 할수 있을게 아닌가고 말씀하시였다.

아버지가 어디에 탈이 난지 몰라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있다는 한동무의 말을 들으시며 수령님께서는 누워있는 그의 아버지앞으로 다가가시여 맥을 보시고 이마도 짚어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무의 아버지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잠시 아무 말씀도 않으시고 생각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무에게 어디 좀 다녀오겠으니 아버지곁에서 떠나지 말고 병구완을 해드리되 물을 좀 끓여놓으라고 이르시였다.

한동무는 말씀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퍼그나 시간이 지나서 수령님께서는 땀을 흘리며 손에 여러첩의 약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서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한동무에게 빨리 더운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구들에 올라가시여 그의 아버지를 흔드시였다.

약을 잡수셔야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지어왔는데 효험이 있겠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사발과 약봉투를 손에 드시고 한동무의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시였다.

한동무의 아버지가 깊은 잠에 들자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자리를 뜨시면서 한동무에게 저녁과 래일 아침에 약을 더 대접하며 그래도 효험이 없으면 자신께 알려달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돌아가신 후 한동무는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아버지에게 약을 대접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한동무에게 자기는 일없으니 어서 학교에 가라고 하였다.

한동무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하도 떠미는 바람에 학교로 갔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다.

학교에서 돌아온 한동무는 그만 가슴이 철렁하였다.

아버지가 자리에 없었던것이다.

그가 아버지를 부르며 여기저기 찾는데 문뜩 뒤울안에서 아버지가 나왔다.

한동무는 아버지를 부르며 급히 달려가서 아버지를 부축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벌써 병색을 가신 얼굴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됐다. 그만두어라. 이번에 나는 소년회 회장덕분에 살아났다. 너도 그리 알고 그 은혜를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고마운 《통역원》

길림에 있는 조선사람이 운영하는 삼풍려관은 조선에서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많이 리용하였다.

어느날 려관에는 멀리 경상도에서 길림으로 들어온 이주민부부가 찾아와 들었다.

며칠간 려관에서 묵은 그들은 북쪽으로 또다시 길을 떠나게 되여 마차 한대를 불러왔다.

그런데 마차부는 중국사람이였는데 조선말을 전혀 몰랐다.

이주민부부 역시 중국말을 몰랐다.

그들은 저마끔 제나름의 시늉을 하며 의사를 소통해보려 했으나 도무지 그렇게 할수 없었다.

할수없이 이주민부부는 마침 밖으로 나온 려관집주인을 붙들고 좀 도와달라고 했다.

그런데 려관집주인도 려관을 찾아오는 조선사람들만 상대했으므로 중국말을 잘 몰라 통역을 제대로 할수 없었다.

이날따라 려관을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도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데 해를 쳐다보고 시간을 가늠해보던 마차부는 그만 도로 가겠다고 이미 실어놓은 짐을 부리우라고 하였다.

참으로 야단이였다.

이주민부부는 그만 울상이 되여 짐을 부리우려고 하였다.

이때 마침 삼풍려관으로 오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무슨 일인가고 물으시였다.

려관집주인은 사유를 말씀드리고 안타까와 어쩔바를 몰라했다.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성큼 앞으로 나서시여 첫마디부터 류창하게 중국인마차부와 중국말로 대화를 하시였다.

모두들 놀라와 그이를 우러렀다.

수령님께서는 시종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이번에는 이주민부부에게 어디로 가려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이주민부부는 그이께 목적지를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다시 그 내용을 마차부에게 알려주고 운송비까지 흥정하시여 이주민부부에게 알려주시였다.

이리하여 이주민부부는 그날로 목적지를 향해 떠날수 있게 되였다.

마차우에 올라앉은 부부는 때마침 오시여 자기들의 딱한 사정을 풀어주신 그이께 몇번이고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다. 마차부도 손을 들어 사례하고나서 힘껏 채찍을 휘둘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형직선생님의 뜻대로 일찌기 소유하신 해박한 중어지식은 그이께서 중국동북지방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실 때 큰 도움이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록 이날엔 자신의 중어지식으로 조선인부부와 중국인마차부사이의 대화를 이어주셨지만 후날 항일의 혈전장에서는 수많은 조중 두 나라 혁명가들과 반일부대장병들사이의 전투적우의를 맺어주셨고 반일공동전선이 이룩되도록 하시였다.

부상당한 소년을 위해

1927년 늦가을 어느날 소년회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북산공원에서 군사놀이를 하고있었다.

그런데 맹렬히 진행되던 군사놀이가 거의 끝나갈무렵이였다.

한 소년이 갑자기 세게 넘어지면서 다리를 몹시 다쳤다.

동무들이 급히 달려왔으나 다리를 다친 소년은 다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면서 앓음소리를 내였다.

모두들 어쩔바를 몰라 서성거리며 돌아갔다.

이때였다.

산중턱에서 군사놀이를 지도하시던 수령님께서 웬일인가, 많이 다쳤는가고 하시며 급히 뛰여오시였다.

수령님께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차근차근 말하라고 하시자 소년은 몹시 아픈듯 괴로와하며 그이께 다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였다.

소년의 바지가랭이를 조심히 걷어올려 다친 다리를 주의깊게 살펴보신 수령님께서는 못내 걱정스러워하시며 뼈를 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아무래도 빨리 병원엘 가야겠다고 하시며 소년을 업으려고 하시였다.

소년회원들은 너도나도 김성주선생님께서는 군사놀이를 지도하셔야 한다고 하면서 소년을 자기들이 업겠다고 나섰다.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은 아직 어려서 병원까지 이 동무를 업고 가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조심히 소년을 업고 일어서시였다.

그리고 소년회원들에게 군사놀이를 계속하라고 이르시고는 소년을 업고 10리가까이 되는 곳에 있는 조선인병원으로 달려가시였다.

병원침대우에 환자를 내려 눕혀놓으실 때 수령님의 잔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신 후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시며 얼마 안되지만 치료비로 받아달라고 하시였다.

나이지숙한 의원은 한동안 수령님을 바라보더니 못내 섭섭한 기색을 지으며 그러지 말라고, 내 어린 소년을 업고온 학생의 성의를 보고도 돈을 받는다면 벌을 받을것이라고 하면서 끝내 돈을 받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다시 소년을 업고 그의 집으로 가시였다.

전후사연을 다 듣고난 소년의 부모들은 눈시울을 적시면서 진정을 담아 말씀올렸다.

《친혈육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고마운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그들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4. 단합을 위하여

끝장을 본 론쟁

리준이 간 길로 갈것인가? 안중근의 방법을 따르겠는가?

이것은 1920년대 조선사람들의 정치활동무대이며 조선민족주의운동의 거두들의 집결처였던 길림에 모여든 독립운동자들이 몇달째 계속해온 론쟁이였다.

이들이 저저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우기다나니 어떤 때는 패싸움으로 번져지기까지 하였다.

1927년 2월 중순 어느날 길림조선인소학교 강당에서는 수많은 민족주의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이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시작부터 맹렬한 론쟁으로 번져진 토론회에서 처음에는 독립운동자들이 두패로 갈라져 열변을 토하였으며 나중에는 모임에 참가한 학생들까지 두패로 나뉘여 옥신각신하였다. 론쟁은 계속되였으나 누구도 리준이나 안중근의 투쟁방법의 제한성을 설득시키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객석에 앉아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단에 나가시였다.

수많은 눈길들이 그이께 쏠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안중근과 리준은 일제의 예속에 항거해나서 조선민족의 굴함없는 정신을 보여준 애국렬사들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시고나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리준과 안중근은 다같은 애국지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투쟁방법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을 실현해보려고 한 리준이나 개인테로의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을 성사시켜보려고 한 안중근의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있습니까? 그것은 그 어떤 강대국에 대한 의존이나 개인테로의 방법으로써는 나라의 독립을 결코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순간 조용하던 장내가 웅성이기 시작했다.

의문어린 눈길들이 또다시 그이께로 집중되였다.

한번 객석을 쭉 일별해보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그러면 나라의 독립을 어떻게 하면 이룩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체 조선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일제와 맞서 싸우는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투쟁정신이 강하고 창조력이 뛰여난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입니다. 이러한 인민이 하나로 단합되여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선다면 우리는 능히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숙원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독립의 열쇠는 오직 단결하여 투쟁하는데 있습니다.》

순간 장내에서는 열광적인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그후부터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하는 토론회들에서 이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열띤 목소리들을 더는 들을수가 없게 되였다.

차천리로인에게서 찾으신 교훈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속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신것은 1927년 겨울방학때부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속에 들어가 연예선전대활동을 활발히 벌리시여 인민대중을 의식화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날소년동맹원들과 백산청년동맹원들, 부녀

회원들로서 연예선전대를 무어주시고 무송과 그 주변의 농촌부락들을 한달가량 순회하시면서 공연활동을 적극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혈분만국회》**,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딸에게서 온 편지》**와 같은 반일애국사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기본으로 한 연예선전대의 공연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관중의 대절찬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순회공연을 하면서 도처에 조직도 꾸리고 군중계몽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8년 2월 연예선전대를 이끄시고 두지동에 가시여 연예선전대활동을 벌리시였다.

두지동에서의 공연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부락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예정했던 체류기일을 여러번 연장하였다.

연예선전대의 공연에서 두지동인민들을 크게 감동시킨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지도하신 혁명가무 **《단심줄》**이였다.

관중들은 이날 공연을 보면서 정말 신통하다, 신비하다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첫 공연이 끝났을 때에 있은 일이였다.

두지동 새날소년동맹 위원장이 무대뒤로 뛰여와서 위대한 수령님께 마을의 좌상아바이가 찾는다고 알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방금 공연을 한 집의 울타리밖으로 나가시였을 때 입에 골통대를 문 중늙은이가 기다리며 서있다가 수북한 눈섭밑으로 다가오시는 수령님을 유심히 바라보고있었다.

그 로인으로 말하면 한때 창기를 들고 의병투쟁에 나서 이름을 날렸다는 차천리라는 로인이였다.

차천리란 젊어서 의병투쟁을 할 때 천리길을 하루밤에 걸어다녔다고 하여 붙은 차가성을 가진 이 로인의 별명이였다.

차천리로인은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로인은 지난날 조선민족이 얼마든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칠수 있었고 독립국가의 당당한 인민으로 발전할수 있었으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통탄하였다. 그는 독립운동을 하려면 말만 하여서는 안되며 손에 총을 잡고 왜놈을 하나라도 더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차천리로인은 연예선전대에서 공연한 《**단심줄**》이라는 가무가 대단히 좋다고 하면서 지난날 의병활동이 흐지부지되여버린것도 힘을 합치지 못한탓이며 독립군이 맥을 못추고 왜놈들에게 쫓겨다니는것도 역시 힘을 합치지 못하고 제가끔 뿔뿔이 놀아나는탓이라고 개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사람은 비록 셋이 모여도 단결하여 왜놈들과 싸워야 하네.》

로인은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손을 붙잡고 자기는 나이가 많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울것 같지 못하다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잘 싸워달라고 당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인의 말을 들으시며 조선의 아들로서 인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혁명을 잘해야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느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잊지 못해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그날 밤 차천리로인이 해준 말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조선사람들은 비록 셋이 모여도 단결하여 일제와 싸워야 한다고 한 로인의 말은 그후 우리의 투쟁에서 큰 교훈으로 되였다.

연예선전대를 데리고 사람들속으로 들어가면 군중을 깨우쳐주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군중에게서 배우기도 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의 선생은 역시 인민이였다.

그래서 나는 일군들을 만날 때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고 간곡하게 말하군 한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은 보약을 먹는것과 같고 들어가지 않는것은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늘 강조하군 한다. 인민들속에 들어가야 차천리 같은 로인도 만날수 있다. 인민들속에는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정치경제학도 있다.》

내도산마을에서

1928년 2월 설명절이 지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도현에 조선사람들만 사는 내도산마을로 향하시였다.

하늘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우는 백두산기슭의 이 마을은 울창한 밀림속의 산간벽촌이였다. 내도산이란 수림속의 섬 같은 산이란 뜻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무송에서 내도산까지는 300리가 넘었다. 중국쪽에서 보면 만주땅의 마지막부락이지만 조선땅에서 보면 백두산너머 첫 마을이다.

이 내도산주변 100리안팎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차 백두산주변을 큰 혁명기지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미 《ㅌ. ㄷ》성원인 리제우를 내도산에 파견하시여 그 일대의 청년들을 조직에 묶어세워 백산청년동맹지부를 내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런데 리제우는 위대한 수령님께 한번 와서 도와달라고 제기하였다.

내도산마을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발을 붙이기가 무척 어려운 고장이였다. 마을에는 주로 최가, 김가, 조가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들은 바깥세상과 담을 쌓고 서로 삼각혼사를 맺었다.

그가운데서도 제일 문제로 되는것은 이 마을사람들의 대부분이 천불교를 믿는것이였다.

리제우는 이 내도산일대에서는 천불교가 골치거리라고 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식을 거행하는 천불교신자들의 진지한 모습과 마을의 천불교 교주와의 담화를 통하여 천불교에 대해 생각을 한번 더 깊이하지 않으실수 없었다.

교주는 한때 독립군에서 싸우던 사람이였는데 독립군이 맥을 못추게 되자 총을 내던지고 내도산에 들어와 왜놈들에게 천벌을 내리고 조선민

족에게는 복을 내려달라고 백두산천기에 빌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하는 천불교를 만들었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왜놈들에게 천벌을 주고 조선민족에게 복을 내려줄것을 바라는것은 애국의 넋이 깃든 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시였으며 천불교를 타도할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일감정을 적극 지지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곳에 한 열흘가량 머물러계시면서 마을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을사람들속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낡고 뒤떨어진 사상의식을 개변하기 위한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짧은 기간에 농민들은 물론 천불교를 믿던 사람들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키시였다.

그리고 이 부락에 백산청년동맹지부도 내오고 소년탐험대도 꾸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을을 떠나시기 전날 저녁 마을사람들을 모여놓고 강연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연에서 먼저 우리 동포형제들이 지금 만주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망국노의 원한과 설음을 안고 피눈물속에 살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5천년 력사국을 자랑하며 삼천리금수강산에서 화목하게 살아오던 우리 민족이 오늘 누구때문에 제 나라, 제땅을 두고 이국땅에 쫓겨와 이처럼 깊은 산속에서 해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숨어서 살아야 하는가고 절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은 다 일제침략자들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침략자들의 간악한 략탈과 학살만행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가며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연은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지난날 정든 고향을 떠나 살길을 찾아 헤매던 피눈물나는 지난날과 오늘의 비참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으며 일제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슴을 끓어번지게 하였다.

한번의 강연으로 푼 갈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에서 활동하시던 당시 카륜일대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속에서는 출신이 어느 지방인가에 따라 한마을에서도 북도사람과 남도사람으로 갈라져있었다.

어느날 저녁 지방적편견이 제일 심했던 카륜일대의 어느 한 마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시여 강연을 하신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두들 강연장소로 모여들었다.

아이들도 승벽내기로 울바자에 어깨성을 쌓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수령님을 우러렀다.

농민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그해 농사형편이며 생활형편에 대하여 료해하신 수령님께서는 강연을 시작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카륜일대 조선사람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편견과 갈등에 대한 문제에로 화제를 돌리시였을 때 방안은 쥐죽은듯 조용해지고 모여든 사람들의 낯색은 모두 컴컴해졌다.

그런 그들을 일별하시던 수령님께서는 파쟁만을 일삼다가 나라를 망친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지난날 봉건통치배들은 동인이요, 서인이요 하면서 당파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망쳐먹었다고, 그런데 오늘은 또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지방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독립운동을 말아먹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그 말씀은 청중의 심중을 세차게 흔들었다.

파쟁으로 나라를 망친 봉건통치배들에 대하여 그처럼 분노를 터뜨리던 자기들이 민족주의자들의 책동에 롱락되여 같은 동포끼리 서로 싸움까지 벌리였으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자책감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진정으로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런 지방적인 편견을 따라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일제를 타도하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면 지금처럼 남도사람이요, 북도사람이요 하면서 서로 반목질시할것이 아니라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이때 한 농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령님께 이렇게 아뢰였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우리들은 지난날 참으로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우리 경상도내기들도 앞으로는 나라찾는 일에 합심하여 나서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옳수다!》하는 말들이 튀여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 농민들을 기쁨에 넘쳐 바라보시면서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면 전민족이 단결하여 싸워야 한다고 호소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민족의 단결을 이룩하자면 혁명적인 조직을 내오고 그 주위에 한결같이 뭉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길림과 무송 그리고 그 일대의 농촌부락들에 농민, 청년, 부녀자, 소년들의 조직들이 나오고 활발히 움직이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생동하게 이야기해주시였다.

서로서로가 혁명조직에 굳게 뭉쳐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리는 그곳 혁명조직들에서 이룩한 투쟁성과는 그들을 크게 흥분시켰다.

장내는 삽시에 활기에 넘쳤고 단결하여 싸우자는 열띤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잠시후 강연이 끝나자 좀전까지도 서로 등을 돌려대던 마을사람들이 서로서로 손을 잡고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용서를 비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마을의 한 좌상로인은 너무도 감동되여 무릎을 치며 말하였다.

《김성주선생님은 나이는 젊으셔도 말씀은 여간 뜻이 깊지 않수다. 장차 그분은 조선독립을 위해 큰일을 하실분이웨다.》

화목을 도모한 운동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길림소년회를 결성하신 다음 소년들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소년회가 조직된 다음인 1927년 5월 첫주 일요일에 북산아래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조직하시였다.

이날 운동장에는 이른아침부터 길림시는 물론 그 주변농촌에 사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내의 이름있는 독립운동자들과 함께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경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수령님께서 간단한 개회사를 하시자 사람들은 길림시내 청소년들속에서 명망이 높으신 그이의 모습을 뵈우려고 발돋움을 하며 연설을 들었다.

개회사에 뒤이어 시작된 운동회는 사람찾기, 달리기, 장애물넘기, 눈싸매고 공몰기, 장기, 바줄당기기, 씨름, 산수문제풀이 등 다채로운 종목으로 진행되였다.

경기에는 소년회원들과 학우회성원들, 학부형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 경기종목마다에서 소년들의 단합과 화목을 이룩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바줄당기기경기를 할 때에는 바줄을 잡고 마주서있는 두 단체 선수들에게로 나오시여 바줄당기기경기는 특별히 집단의 단합된 힘을 요구하는 경기인것만큼 모두가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길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고무해주기까지 하시였다.

바줄당기기경기에 이어서 진행된 사람찾기경기는 정말 볼만 하였다.

이 경기는 소년회원들이 종이쪽지에 적힌 부모들과 독립운동자들을

찾아가지고 결승선까지 달리는 경기였다.

사람찾기경기가 시작되자 온 운동장이 들썩하였다.

흰 두루마기자락을 펄럭이며 소년, 소녀들의 손에 이끌리여 달리는 독립운동자들과 학부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군중들속에서는 웃음과 환성이 터져나왔다.

이날의 운동회에서 더우기 이채로운 광경은 평상시에 《정의부》요, 《참의부》요, 《신민부》요 하면서 멀리하던 독립운동자들이 주석단에 앉아 서로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네고 기세도 올리면서 응원을 하는 모습이였다.

즐거움속에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운동회는 오후에야 끝났는데 시상식이 있은 다음 수령님께서는 간단한 연설을 하시였다.

운동회준비사업을 성의껏 도와준 독립운동자들과 학부형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이번 운동회는 길림시에 살고있는 조선사람들의 화목을 이룩하고 단결을 도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해마다 5월 첫주 일요일에 이런 운동회를 조직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는 운동회를 통하여 길림에 사는 조선사람들의 단합된 힘을 크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운동회에서 단합된 힘을 보여준것처럼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는 투쟁에서도 단결하여 싸워야 합니다.

단결하여 투쟁할 때라야만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끝으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굳게 단결하여 일떠서자고 호소하시자 장내는 열렬한 박수갈채로 끓어번졌다.

운동회가 있은 다음 신비하게도 좀처럼 화해할것 같지 않던 소년들이 언제이런가싶게 다정한 친구들이 되여 서로서로 어깨를 겯고 다니게 되였으며 소년회사업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나갔다.

3부통합

길림의 상의가에는 조선사람이 경영하는 복흥태라는 정미소가 있었다. 여기서는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등 민족주의운동단체 거두들이 모여 3부통합을 위한 회의를 해를 넘기며 벌리고있었다.

세력다툼에 골몰하던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주의운동의 주객관적요구와 인민들의 비난에 못이겨 3부통합을 제창하여 모여앉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조선독립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궤변과 자리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있었다.

그들은 통합보다는 누가 주도권을 쥐는가 하는데 신경을 쓰면서 다툼질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민족주의자들의 3부통합회의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단합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권력싸움을 풍자한 《3인1당》이라는 연극을 만드시였다.

연예선전대의 공연준비가 다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부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시여 회의를 하느라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연극을 하나 만들었는데 피곤도 푸실겸 한번 와보라고 하시며 3부통합회의에 참가한 민족주의자들을 공연에 초청하시였다.

공연은 1929년 3월 손정도목사의 례배당에서 진행되였다.

이날 공연에서는 노래와 춤을 비롯한 몇가지 종목들이 끝난 다음 맨 마지막으로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에 초대된 민족주의자들은 청년학생들이 출연하는 노래와 춤에 이어 혁명연극 《3인1당》을 재미있게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극에서 자리다툼만 하는 세 정승의 형상이 자기들의 몰골을 풍자했다는것을 알아채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달아나버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 아침 그들을 찾아가시여 이렇게 물으시였다.

《어제 저녁에 선생님들은 왜 공연도중에 가시였습니까? 연극을 마지막까지 보셔야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어제 저녁 공연에서 자기들을 뭐라고 욕했는가고 하면서 노발대발하는것이였다.

《선생님들, 무엇이 그렇게 노엽습니까? 선생님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기에 우리도 너무 답답해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연극은 청년들의 의사를 대변한것인데 청년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대중이 무엇을 원하고있는지 선생님들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사리정연한 말씀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그후 청년들보기가 부끄러워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하면서 형식상으로나마 국민부라는 이름으로 3부를 통합하였다.

5. 조직의 확대를 위하여

조선인길림소년회와 조선인류길학우회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청년학생들속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여간 선진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점차 력사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들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게 하였다.

청년학생들의 사상의식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이러한 조건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조직에 묶어세워나가시였다.

그것은 조직을 통해서만 맑스-레닌주의사상을 더 널리 보급할수 있었고 핵심력량도 더 빨리 키워낼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막상 조직을 내오고 거기에 청년학생들을 망라시키자고하니 복잡한 문제들에 부닥치게 되였다.

청년학생들을 조직화하는데서 큰 난관으로 제기되였던것은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이미 만들어진 기성청년조직들이 있는 조건에서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새로운 조직을 내오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길림에는 길림청년회, 조선인려길학우회와 소년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성조직들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있는 조직들가운데서 간판만 있고 활동하지 않는 조직은 무시하고 새롭게 꾸리며 미약하게나마 움직이는 조직은 그대로 두고 리용개편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결심하시였다.

그때 길림에는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소년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뿐이고 길림시내의 조선소년들은 그런 조직이 있는지조차 모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7년 4월 손정도네 례배당에서 조선인길림소년회라는 합법적조직을 결성하시였다.

소년회는 로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민족주의자의 자제들을 비롯하여 길림시안의 조선인소년들을 다 망라시키였다.

조선인길림소년회의 목적은 소년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데 있었다.

조선인길림소년회는 강령에서 회원들이 새로운 선진사상을 학습하고 그것을 광범한 군중속에 널리 해설선전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때로부터 한달후인 5월 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려길학우회를 순수한 친목단체로부터 혁명적인 조직인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개편하시였다.

조선인류길학우회는 겉으로는 조선인청년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표방하였지만 실지로는 《ㅌ. ㄷ》의 리념을 실현하는 혁명적인 학생청년조직으로 활동하였다.

반제청년동맹

조선인길림소년회와 조선인류길학우회, 맑스-레닌주의독서조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길림일대에서는 《ㅌ. ㄷ》성원들을 핵심으로 하는 새 세대의 혁명력량이 급속히 자라나게 되였다. 길림에 주재하고있던 일본총령사까지도 이것을 간파하고 여기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일제는 내부가 통일되여있지 않고 사분오렬된 조선공산당의 종파집단이나 실행력과 군중에 대한 침투력이 미약한 민족주의세력보다도 파쟁과는 담을 쌓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인민대중속에 깊숙이 스며들어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해가는 새 세대 혁명력량의 존재를 더 무서워하였다.

길림에 새로운 운동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만주각지는 물론 국내와

중국관내에까지 퍼져갔다. 이 소문은 주로 길림에 와서 공부하던 류학생들과 그들의 부형들에 의하여 멀리까지 전파되였다.

그리하여 국내와 일본, 연해주, 만주 각지에서 정견과 소속, 생활경위가 서로 다른 수많은 청년들이 길림으로 모여들었다.

김혁, 차광수, 김준, 채수항 등도 그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ㅌ. ㄷ》에 받아들이시는 한편 조직을 시내 여러 학교들에 확대해나가시였다.

그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ㅌ. ㄷ》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망라할수 있는 조직을 내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였으며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1927년 8월 27일에 《ㅌ. ㄷ》를 보다 대중적조직인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시였다.

반제청년동맹은 《ㅌ. ㄷ》의 구호를 그대로 내세우고 그 강령을 그대로 계승한 반제적이고 대중적인 비합법적청년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직의 기본구성은 조선청년들이였으나 반제적립장이 강한 중국청년들도 거기에 가입시키시였다.

반제청년동맹은 광범한 반일청년대중을 혁명대렬에 묶어세우며 반일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하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 조직은 문광중학교, 길림제1중학교, 길림제5중학교, 길림사범학교, 길림녀자중학교, 길림법정대학을 비롯하여 조선학생들이 있는 시내의 모든 학교들에 다 들어갔으며 강동, 신안툰을 비롯한 길림주변의 농촌지역과 류하현, 화전현, 흥경현일대에도 뿌리를 박았다.

조선청년들이 있는 곳이면 다 퍼지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청년운동발전의 주객관적요구로부터 새로운 전위조직인 공청을 내오실것을 결심하시고 1927년 8월 28일

북산공원의 약왕묘지하실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는 모임을 가지시였다.

모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에 즈음하여》**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모임에서는 이어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강령과 규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공청조직의 지도기관선거가 있었다.

선거에서는 모임참가자들의 일치한 념원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책임자로 추대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고 여러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로 무어진 반제민족해방과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비합법적인 청년조직이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로서 각계각층 대중단체들을 조직지도하는 전위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청을 창립한 다음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대오의 조직사상적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헌병, 경찰, 특무들의 준동과 반동분자들, 종파분자들의 해독행위가 심한 당시의 실정에서 조직을 보존할수 없었다.

공청은 동맹원들의 사상교양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들속에서 정치리론수준과 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에 많은 힘을 넣었다.

동맹원들속에서는 그때 《제국주의론》, 《식민지와 민족문제》, 《조선혁명의 당면투쟁과업》과 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청원들의 조직생활을 매우 중시하시였다.

그 당시 공청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성격검토회를 가지고 공청원들의 생활을 총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청원들에게 아래조직들을 지도할데 대한

분공, 청년학생들과 군중을 계몽시킬데 대한 분공, 농촌을 혁명화할데 대한 분공 등 다양한 분공을 많이 주어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들을 부단히 단련시키시였다.

또한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된 우수한 청년들로 공청대오를 부단히 늘여나가시였다.

그리하여 공청은 짧은 기간에 길림시와 그 주변은 물론, 돈화, 화전, 무송, 안도, 반석, 장춘, 할빈 등 만주의 넓은 지역과 북부조선일대를 비롯한 국내깊이에까지 확대되였다.

공청은 조선혁명에서 전위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청은 당시 자기 산하의 청소년조직들에 대한 지도와 함께 로동자조직, 농민조직, 녀성조직들에 대한 지도까지 동시에 담당수행하였다.

공청은 청년들의 조직적결속을 촉진시키고 핵심을 육성하며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눈부신 역할을 하였다.

공청의 창립은 새형의 당조직을 내오기 위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그 위업을 앞당기는데서 중추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을 하였다.

백산청년동맹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학기간 무송에서 활동하시면서 백두산지구의 여러 농촌마을들에 나가 광범한 청년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무송과 안도, 장백과 림강을 비롯한 백두산변두리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있는 백두산지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르익히신 조국해방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곳이였다.

백두산지구는 국내깊이에까지 드나들수 있는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지고있었으며 조선인근로청년들이 비교적 많았고 주민구성도 매우 좋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송과 그 주변농촌에 사는 농촌청년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시면서 새로운 청년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면밀히 다그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7년 12월 20일 무송지방의 핵심청년들과 백두산주변의 청년들을 망라하여 대중적반일청년조직인 백산청년동맹을 조직하시였다.

백산청년동맹은 사실상 반제청년동맹의 변신이였다.

그 조직에 백산반제청년동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저 청년동맹이라고 하신것은 적들에게 혼란을 주고 조직을 위장시키기 위해서였다.

백산청년동맹은 민족주의영향하에 있는 단체처럼 변장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하였다.

백산청년동맹의 당면과업은 무송을 중심으로 하는 백두산주변일대의 청년들을 하루속히 조직에 묶어세우는것이였다.

동맹은 자기 대렬을 짧은 기간에 무송일대로부터 안도, 돈화, 장백, 림강 등 백두산주변의 넓은 지역에로 확대강화하면서 강연, 해설담화, 선전대활동 등 다양한 선전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백산청년동맹원들은 청와재를 비롯한 주변의 농촌마을들에 야학을 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조직들이 늘어나고 그 대렬이 확대되는 조건에서 광범한 청년들과 군중들에게 사상적인 량식을 줄수 있는 신문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문을 찍어내는데 필요한 등사기도 종이도 없는 조건에서 손으로 써서 신문을 내기로 하시고 이 사업에 새날소년동맹 열성자들과 백산청년동맹의 핵심들을 동원시키시였다.

100부를 쓰는데 한주일이상의 시간이 걸리였다. 마침내 1928년 1월 15일 조선의 첫 혁명적출판물인 《새날》신문이 창간되였다.

《새날》신문은 청소년들과 인민들을 반일애국정신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농민동맹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일먼저 농민동맹을 내오신 곳은 신안툰이였다.

신안툰은 길장연도에서 서쪽으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로서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리상향으로 개척해놓은 마을이였다.

만주의 조선인거주지역들중에서도 몇개 안되는 정치운동의 책원지였다. 이 마을을 혁명화하면 농민대중으로 들어가는 첫 통로를 개척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차광수에게 그 과업을 맡기시였다.

이 과업을 받고 차광수는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는 시골에 있다가 운동선을 찾아 모처럼 올라온 사람을 왜 도로 시골로 보내는가고 롱담절반, 진담절반으로 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차광수에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시였다.

큰 도시 같은데 틀고앉아야 혁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도시건 시골이건 인민이 있는 곳이면 가리지 말고 가야한다. 우리 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는 농민이다. 만주지방의 조선사람들도 대부분 농촌에서 살고있다.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조국해방위업에 인민을 동원시킬수 없으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의 승리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나도 학교를 마치면 농촌에 가서 사업하려고 한다. … 지금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우로만 올라가고있다. 시골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국제당으로… 무산대중을 위한 혁명을 한다면서 대중을 떠나 자꾸 우로만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자. 아래에 내려가 로동자, 농민들속으로 들어가자. …

수령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차광수는 잠시 혼자소리로 《우로 올라

갈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되뇌이고나서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책상을 주먹으로 쾅 하고 내리치면서 《그것 참 신통한 발견이요!》라고 부르짖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요일이면 공부가 끝나기 바쁘게 신안툰마을을 비롯한 주변농촌으로 나가군 하시였다.

그럴 때마다 적들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길림교외의 수수밭이나 강냉이발속에 들어가 학생복을 농민복으로 갈아입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에 나가시여 농민들과 함께 일도 하시고 담화도 하시면서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속에 들어가시여 지난 시기 농촌에서 문맹퇴치와 생활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개조하는데 머무르고있던 농촌계몽활동을 대중을 조직화, 혁명화하기 위한 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8년 3월 10일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혁명적농민조직인 농민동맹을 결성하시였다.

농민동맹은 《ㅌ. ㄷ》의 기치밑에 일제와 친일지주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내세웠다.

반일로동조합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시기 로동자들과의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당시 길림에는 화력발전소, 철도기관구, 성냥공장, 방직공장, 정미공장과 같은 크고작은 공장들이 적지 않았지만 로동계급을 망라하는 신통한 조직은 없었다.

다만 1927년 봄에 조선인로동자들의 취직과 생활편의를 도모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성회가 조직되였을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화력발전소에 다니다가 농촌에 나온 한

청년을 교양하여 반제청년동맹에 받아들이고 그가 이전부터 일해왔다는 길림화력발전소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였다.

그가 길림화력발전소에 발을 붙이고 선진적인 로동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동자들속으로 들어갈수 있는 발판이 생기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길학우회 성원들을 발동하여 송화강선창을 중심으로 로동자야학을 조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1인민봉기기념일이나 5.1절 같은 때 그들을 찾아가 연설도 하고 연예공연도 하시면서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시였다.

이런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8년 8월 25일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조직인 반일로동조합을 무으시였다.

반일로동조합은 《ㅌ.ㄷ》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제와 예속자본가를 타도하고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이룩하는것을 당면투쟁과업으로 내세웠다.

반일로동조합이 결성된데 이어 철도기관구, 성냥공장 등 여러 공장들에 산하조직으로서 지부가 나왔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때부터 청년학생들을 주되는 사업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의식화, 조직화를 다그쳐오시던 활동판도를 로동계급속에까지 넓히고 그들을 조직에 묶어세워나가시였다.

화성의숙시절이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학생운동의 시작이였다면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은 학생의 테두리를 벗어나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속에 깊이 침투되여 도처에 혁명의 씨앗을 뿌려가시던 그이의 청년운동의 전성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혁명가의 생명은 군중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며 군중을 떠날 때 끝이 난다고 할수 있다고 하시며 잊을수 없는 길림시절에 축적하신 매우 유익한 경험들에 대하여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나는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였고 오늘도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혁명을 계속하고있다. 그리고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인생을 총화하고있다. 단 한번이라도 인민들과의 접촉을 게을리하고 단 한번만이라도 인민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나는 10대의 시절에 이미 형성된 인민에 대한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오늘까지 간직하지 못하였을것이며 인민에 대한 참다운 복무자가 되지 못하였을것이다.》

6. 투쟁의 앞장에서

안창호구출투쟁

1927년 2월 상해림시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있던 안창호가 말문이 막혀 강연을 중지하고 연탁을 내려서던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길림독군서에서 수백명의 헌병과 경찰들이 강연회장에 불시에 달려들어 3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체포했던것이다.

안창호는 물론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이 한꺼번에 무리로 붙잡혀 경찰청에 구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에 《ㅌ. ㄷ》성원들의 회의를 열고 붙잡힌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시였다.

그 걸음으로 독립운동자들을 찾아가 그들과도 체포된 사람들을 빼내올 방법을 의논하시였다.

그런데 그들은 넋을 잃고 앉아있을뿐 속수무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두 단결하여 길림독군서에 압력을 가하면 안창호선생은 물론 체포된 사람들을 다 빼내올수 있으며 군중의 힘을 동원하는것이 제일 위력하다는것을 거듭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례배당에서 시내의 독립운동자들과 조선인 유지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군중집회를 여시고 일제와 그와 야합한 반동군벌당국의 불법적인 망동을 항의규탄하시였으며 겨레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조선사람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단결하여 애국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중적석방운동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시였다.

안창호에 대한 석방운동을 벌리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리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민족주의자들은 물론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과 혁명조직의 영향을 받고있는 청년학생들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안창호의 리론에 대하여 서면질문까지 들이댄 사람이 왜 이번에는 그를 구원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쓰느냐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창호의 사상을 문제시하는것이지 안창호란 인간자체를 반대하는것은 아니다, 안창호도 조선사람이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지사인데 어떻게 그를 구원하지 않을수 있겠는가고 설복하시였다.

그리하여 군중집회가 있은 다음 길림의 담벽과 전주대들에는 《중국경찰이 근거없이 조선동포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놓고 박해한다.》, 《중국관헌은 일제의 간계에 속지 말라!》, 《감옥에 갇힌 조선동포들을 하루빨리 석방하라!》는 내용의 삐라와 격문들이 나붙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여러곳에서 중국반동군벌들과 경찰들의 비행을 단죄하는 강연사업을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신문사들에도 글을 써내시여 사회여론을 환기시키시였다.

길림시안의 청소년들과 군중들은 매일과 같이 독군서에 몰려가 감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웨치면서 시위도 벌렸다.

날로 분분해지는 사회적여론과 군중의 압력에 못이겨 일제와 반동군벌들은 40여일만에 안창호를 비롯한 구속자전원을 석방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더 치르게 한 삯전

뙤약볕이 내려쬐는 어느 여름날 동무들과 함께 북산에 갔다오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가에서 인력거군이 부자와 다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시였다.

인력거를 타고온 부자가 인력거군한테 돈을 적게 준 모양이였다.

인력거군이 부자에게 지금은 삼민주의시대인데 《민생》문제를 좀 돌봐주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한푼만 더 달라고 빌었다.

부자는 돈을 더 줄 대신에 도리여 《넌 삼민주의만 알고 <오권헌법>은 모르느냐. 되지 못한 도적놈같으니》라고 하면서 지팽이를 들어 인력거군을 때리였다.

인력거군의 어깨가 단박에 흠칠했고 모여섰던 사람들도 치를 떨었다.

하지만 인력거군을 동정이나 하고 부자놈을 미워나 했지 어느 누가 사정없이 내려치는 그놈의 지팽이를 막아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이때 중학생복차림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빨리 부자놈의 쳐들린 팔목을 잡고 이게 무슨 짓인가, 왜 사람을 치는가, 인력거를 타고왔으면 삯을 제대로 물어야지 그래 누가 도적놈인가고 하시면서 그자를 노려보시였다.

부자놈은 금시 눈이 커다래져서 그이를 마주보며 겁에 질린듯 웬 참견이냐고 혀아래소리를 했다.

수령님께서는 조금도 주저없이 부자에게 잔말말고 이분에게 삯전이나 제대로 주라고 하시고는 인력거군을 돌아보시며 얼마를 더 받으면 삯전이 되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인력거군은 그저 얼마간 더 주면 보통 받는 삯전이 된다고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다시 부자놈을 향해 돌아서시여 삯전을 더 치르라, 당신은 좋은 옷을 입고 인력거우에 앉아서 호강을 하며 왔지만 이분은 이렇게 등판에 째진 누데기를 걸치고 힘들게 당신을 태운 인력거를 끌고 왔다고, 삯전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면 무엇때문에 그런 고역을 겪겠는가고 놈을 다불리시였다.

그러시고는 주위에 둘러서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이 유들유들한 신사의 경우가 옳은가고 큰소리로 물으시였다.

그러자 모두 이때라고 생각한듯이 참고참았던 의분을 터쳐놓으며 빨리 돈을 주라, 도적놈은 삯을 제대로 안내는 당신이다, 안냈다간 당장 이 자리에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할줄 알라고 부자놈을 닦아세웠다.

부자놈은 그제야 할수없이 주머니에서 돈지갑을 꺼내더니 황급히 돈을 더 치르고는 달아났다.

돈을 받아쥔 인력거군은 위대한 수령님께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허리굽혀 인사를 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고마울게 없다, 정거장에서 여기까지 라면 아직도 받을만큼 다 받았다고 말할수 없다, 세상은 바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기때문에 절대로 비굴하게 살아선 안된다, 인력거에 태워다주었으면 당당하게 삯을 내라고 싸울것이지 무엇때문에 손을 내밀고 비는가, 다 같은 인간인데 무엇이 저런자들만 못해서 빈단 말인가,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깨우쳐주시였다.

인력거군은 알겠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허리굽혀 인사를 올리였다.

우동으로 떼버린 사대주의병

길림육문중학교 영어교원은 사대주의사상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 사람이였다.

얼마나 사대주의가 심했던지 그는 수업도중에 학생들앞에서 서양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데 중국사람들은 소리를 몹시 낸다고, 그것은 다 미개한 표현이라고 하면서 동양사람들을 로골적으로 깔보는 말들을 하였다.

지어 그는 중국사람이면서도 마치 유럽에서 살아본 사람처럼 평시에 옷차림으로부터 걸음걸이에 이르기까지 거드름을 피우면서 서양사람들처럼 행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양인들에 비한 동양인들의 후진성을 론하는 그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줄것을 결심하시였다.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학생들과 함께 식당당번을 서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부러 우동을 먹음직스럽게 만들도록 하시고 교원들을 식당에 초대하시였다.

뜨거운 우동을 먹다나니 그날 식사시간에는 온 식당안에 후르륵 후르륵 하는 소리로 가득찼다.

영어교원도 후르륵후르륵 소리를 내면서 우동을 먹었다.

아마 그 선생이 그처럼 문명하다고 《숭배》하는 진짜서양사람들이 와서 우동을 먹는다 해도 결코 후르륵소리만은 감추지 못할것이였다.

그 선생이 입으로 불면서 소리내여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식당이 떠나가게 웃었다.

학생들이 자기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일부러 우동을 만들었다는것을 간파한 영어교원은 얼굴이 금시에 시뻘개져서 먹던 음식도 다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황급히 달아나버렸다.

그후 영어교원의 입에서는 사대주의망발이 싹 사라졌다.

학생들은 백마디의 말보다 한번의 실천적행동으로 그처럼 고질화되였던 사대주의병을 뚝 뗴주신 수령님의 지략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동맹휴학에서의 승리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새 세대 혁명가들은 조직이 꾸려지고 늘어나는데 따라 일제와 중국반동군벌을 반대하는 실천투쟁에 들어갔다.

그 서막으로 된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8년 여름에 조직지도하신 길림육문중학교 동맹휴학이였다.

당시 일제는 만주침략준비를 다그치면서 중국의 반동군벌을 매수하여 만주에서의 반일운동을 탄압하려고 꾀하였다. 적들의 감시가 집중된 곳은 학교였으며 그가운데서도 길림에서는 육문중학교가 제일 주목을 받게 되였다.

그때까지 육문중학교에서는 식당과 재정관리, 도서관운영에 이르기까지 학교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진보적인 교원들과 학생들의 민주주의적의사에 따라 순조롭게 풀어나가고있었다. 교내에서의 새 세대 혁명가들의 활동도 큰 구속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되였다. 이것은 육문중학교 학생들이 학교교무위원회와의 협동밑에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열매였다.

교직원, 학생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정착된 이 민주주의적질서를 달가와하지 않던 반동군벌당국은 학생청년들의 혁명적기세가 날로 높아지자 학교안에 밀정을 박아넣었다.

적의 특무기관에 매수되여 군벌의 앞잡이로 기여든 교무주임, 훈육주임, 체육주임 등 반동교원들은 학교에 세워진 이 질서를 파괴하고 학교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들의 의사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였을뿐아니라 군벌정권을 추종하는 지주, 관료출신의 보수적인 학생들과 불량청년들을 내세워 학생들의 사상동향과 혁명조직들의 움직임을 무시로 내탐하였다.

놈들의 책동은 1928년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해졌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육문중학교의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지부는 교내에서 일제의 강도적인 제2차 산동출병과 제남에서의 학살만행을 규탄하는 대중적인 항의운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였다.

조직들에서는 일제의 침략정책과 국민당의 반역행위를 폭로하는 강연회, 웅변대회, 성토대회를 련이어 열고 학생들의 기세를 돋구었다.

급격히 높아가는 학생청년들의 혁명적기운에 질겁한 반동교원들은 그것을 공산주의선전이라고 하면서 탄압의 구실로 삼았다. 그들은 도서관을 불의에 습격하여 진보적인 도서들을 회수해가지고가서는 마치 큰 단서라도 잡아쥔것처럼 조선학생들을 다 퇴학시키라고 교장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우파계렬의 학생들은 이에 장단을 맞추어 학교에 세워진 민주주의적질서를 제멋대로 위반하면서 진보적인 학생들을 모욕하고 교장과 선진적인 교원들을 비방중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교안에 조성된 정세를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조직된 력량으로 반동교원들을 몰아내고 교내에 세워진 민주주의적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하기로 결심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일군들의 회의를 여시고 동맹휴학을

통하여 일제와 그의 부추김을 받고있는 중국반동군벌들에게 타격을 줄뿐아니라 청년학생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단련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학생들에게 동맹휴학의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고 조직된 력량으로 놈들과 맞서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맹휴학에서 첫째로 학생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며, 둘째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과목에 대한 수업을 보장하며, 셋째로 교장과 진보적교원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며 교무주임, 훈육주임, 체육주임들을 파면시킬것 등의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할 때까지 완강히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상의 요구조건을 성취하려면 학생들에게 반동교원들의 죄행과 동맹휴학의 목적과 의의를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적극 벌려야 하며 모든 행동에서 통일성과 규률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하신 다음 지체없이 전교학생들을 동맹휴학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1928년 7월 중순 어느날 오후수업이 끝났을 때였다.

종이 울리자 학교학생들이 모두 운동장에 모였다.

공청에서 이미 분공받은 학생은 연단에 올라 반동교원들의 죄상을 낱낱이 폭로규탄한 다음 군벌당국에 제기할 요구조건을 발표하였다.

그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동맹휴학을 단행한다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반동교원들을 몰아내자!》는 구호를 웨치면서 반동군벌당국에 요구조건을 들이댔다.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에서는 이미 준비한 격문, 성토문을 광범한 학생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운동장 이곳저곳에서 반동교원들의 죄상을 폭로하는 불같은 연설들이 계속 진행되였다. 한시간나마 학교운동장에서 기세를 올린 학생들은 대렬을 지어 교문밖으로 밀려나갔다.

다음날부터 육문중학교 전체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부조직을 발동하여 학생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데 대한 삐라와 격문을 시내의 곳곳에 붙이도록 하시였으며 학생들의 동향을 제때에 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이무렵 학교안의 진보적교원들도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지지하여 성공서에 집단적으로 항의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것은 일부 반동적인 교원들이 학원의 민주주의를 짓밟는데서 온 불상사라는것을 밝히고 당국이 이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힘을 개입시키겠다고 들이대였다.

반동교원들의 죄행을 단죄하며 그들을 학교에서 쫓아내라는 삐라와 격문들이 반동교원들의 숙소와 성공서에도 들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시면서 시안의 다른 학교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조직들에서도 육문중학교의 투쟁에 합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길림시안의 제1중학교, 제5중학교, 문광중학교 등 다른 학교들에서도 육문중학교 학생들의 투쟁에 호응할 태세를 보이였다.

성공서에서는 동맹휴학이 온 시내에 파급될 기미가 보이자 하는수없이 훈육주임을 비롯한 반동교원들을 파면시키고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도하신 대중투쟁에서의 첫 승리였다.

동맹휴학투쟁이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받은 학생들은 일제히 학교에 등교하였다.

이 투쟁의 승리는 이제까지 책을 통해서만 혁명투쟁의 원리를 터득해온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학생들에게 단결된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자유와 권리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투쟁으로만 쟁취할수 있으며 단결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과 새로운 투지를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육문중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조직지도하시는 행정에 조성된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옳바른

투쟁구호를 제시하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든다면 대중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체득하시였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 일본상품배척투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맹휴학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청년학생들의 앙양된 기세를 일제의 대륙침략을 반대하는 보다 큰 규모의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오래전부터 만주침략에 미쳐날뛰던 일제는 이 시기에 와서 그 준비를 서둘러 1928년에는 이미부터 개통되여있었던 길장(길림-장춘)철도에 이어서 길돈(길림-돈화)철도부설을 끝내고 만주침략의 중요간선으로 만주의 성소재지 길림과 조선의 북부국경도시 회령사이를 련결하는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완공하려고 서둘렀다.

일제는 길회선철도를 강제로라도 부설하여야겠다는 야심을 품고있었으며 이 철도를 만주침략을 위한 대간선철도로 만들것을 꿈꾸면서 여기에 거대한 전략적의의를 부여하고있었다.

일제는 또한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끝내여 만주지방을 정치군사적으로뿐아니라 경제적으로 틀어쥐고 저들의 상품을 이 지역에 대량적으로 들이밀어 막대한 리윤을 짜내려고 획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공사와 일본상품을 배척하는 투쟁이 가지는 의의와 대중투쟁의 성숙된 요구를 헤아리시고 1928년 10월 7일 북산공원 약왕묘지하실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연설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저지파탄시키자》**에서 길회선철도부설과 일본상품침투의 침략적 본질을 밝히시고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저지파탄시키며 일본상품을 배척하는 대중적인 시위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문제와 그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회선철도부설공사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목적을 놈들의 상품침투행위와 밀접히 결합시켜 청년학생들과 군중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일제에 대한 증오심으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어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여 투쟁하자!》, 《일본상품을 배척하자!》,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자!》** 등 투쟁과정에 내들어야 할 구호와 투쟁방법, 행동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시위투쟁대오를 편성하고 각 대오의 책임자들을 임명하시였으며 시위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시위에 들고나갈 프랑카트와 성토문, 삐라에 담을 내용도 상세하게 토론되였는데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반드시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으로 되여야 한다는 립장으로부터 삐라, 성토문, 프랑카트를 비롯한 모든 선전물들을 조선글로도 쓰고 중국글로도 쓰기로 하였으며 거리에서 하는 선동연설도 두 나라 말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투쟁기간 시내 각 학교들에 조직되여있는 학생자치회와 류길학우회, 소년회와 같은 합법적조직들을 많이 발동시키고 공청이나 반제청년동맹과 같은 비합법적조직들은 될수록 표면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회의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위투쟁준비를 다그쳐나가시던중 철도당국자들이 11월 1일에 길돈선철도개통식을 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를 받으시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길회선철도부설반대의 봉화를 올리면서 동시에 길돈선철도개통식도 파탄시킬 목적으로 시위시작날자를 본래 계획하신 날자보다 며칠 앞당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시안의 혁명조직들에 시위투쟁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시였다.

시위가 진행되는 1928년 10월 26일 아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짜주신대로 각 학교 학생들은 같은 시간에 일제히 교정에서 모임을 가지고 동맹휴학 및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성토문을 발표한 다음 가두시위에 떨쳐나섰다.

거리는 온통 청년학생들로 차고넘치였다.

육문중학교, 문광중학교, 제1중학교, 제5중학교, 녀자중학교를 비롯한 시안의 여러 학교학생들은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자!》,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여 투쟁하자!》는 조선글로 된 프랑카트와 《타도일제》, 《타도매국노》, 《회수길회선》이라고 중국글로 쓴 프랑카트들을 들고 집결장소인 길림성의회 청사앞에 모여들었다.

학생들의 대오와 함께 시민들도 모여들어 성의회마당은 말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수백명의 군대와 경찰이 대렬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위군중을 보위하기 위하여 로동자들과 시주변의 농민들, 학생들로 조직된 규찰대를 발동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천명 군중들에게 조중청년학생들은 단결하여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자고 호소하시였다.

모임을 끝낸 군중은 더욱 기세충천하여 일본령사관이 자리잡고있는 신시가쪽으로 행진해갔다. 평시에는 령사관경찰의 행패가 심해서 좀처럼 발길을 돌리지 않던 곳이였다.

일본령사관앞에서 반일구호를 힘있게 부르며 기세를 올린 시위군중은 대마로, 북경로, 중경로, 상의가 등 길림의 여러 거리를 뒤덮으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길림의 시위투쟁에서 타격을 받은 일제의 철도회사는 길돈선철도개통식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시위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였다.

학생들은 여러개 조로 나뉘여 시내 십여개소에 연단을 설치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가두연설을 하였다.

길림에서 시작된 반일투쟁은 만주 전 지역에 번져갔다.

장춘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도 타도제국주의와 6대철도반대구호를 들고 치렬한 투쟁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위자들의 반일기세가 앙양되고 조직화수준

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기세충천한 시위군중을 일본상품배척투쟁에로 줄기차게 이끌어나가시였다.

군중들은 일본인상점들에서 일본상표가 붙은 상품들을 거리에 끌어내다가 모조리 불태워버리였다. 어떤 상품들은 송화강에 무데기로 쓸어넣었다.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일본상품배척투쟁과 결합되여 전면적인 반일투쟁에로 점점 더 크게 번져가는데 당황한 일제는 반동군벌을 사촉하여 시위군중에게 총을 마구 쏘아대는 만행을 감행하게 하였다.

격노한 군중은 《일제와 결탁한 반동군벌 타도》의 구호를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례식과 결합된 보다 대규모적인 시위로 넘어갔다. 이날의 시위는 많은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최대의 규모를 이루었다.

투쟁은 무려 40여일동안이나 계속되였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으로 하여 일제가 받은 타격은 컸다. 그가운데서도 그들을 놀라게 한것은 조중인민이 단결하여 일제의 만주강점에 항거해나선것이였다.

민족주의자들과 일제의 침략에 겁을 먹고 도망칠 궁리만 하던 사람들도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 민족주의자들은 청년학생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아왔었다. 그런데 10대, 20대의 청년학생들이 자기들로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큰일을 해제끼는것을 목격하고서는 다른 눈으로 그들을 보게 되였다.

농민에게 잘못을 빈 지주

1928년말 쟈쟈툰마을에서는 그 일대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주가 농민의 집에 찾아가 잘못을 비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지주들이 다 그러하지만 이놈은 제 리해관계에 따라 옳은것도 그르

다고 하고 검은것도 희다고 우기는 아주 파렴치한 놈이였다.

그런데 그런 놈이 농민의 집에 직접 찾아가 잘못까지 빌었으니 그때로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였다.

어느날 쟈쟈툰에 갓 이사온 한 조선농민이 카륜 남쪽마을에 가서 개한마리를 사다가 개가죽을 중국농민에게 판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개가죽이 마을에 사는 공가라는 지주의 눈길을 끌었다.

농민의 개가죽에 탐이 난 지주는 다짜고짜로 제놈의 집 개를 훔쳐다가 가죽을 벗겨 팔았다고 하면서 그를 덮어놓고 도적으로 몰았다.

농민이 그런것이 아니라고 거듭 사유를 설명하였으나 그놈은 가병들을 시켜 농민내외를 잡아다 자기 집앞에 있는 버드나무에 거꾸로 매달아놓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치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하여 온 동리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가난한 조중농민들은 지주의 만행에 치를 떨며 분격해하였지만 권세를 등대고 날뛰는 놈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카륜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즉시 반제청년동맹지부와 농민동맹일군들을 부르시여 농민들이 당하는 온갖 불행과 천대와 수모는 전적으로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지주놈의 만행을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마을사람들이 단합해서 지주놈의 만행에 항거해야 합니다. 대중이 힘을 합치면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간악한 지주놈과는 끝까지 투쟁하여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그래야 지주놈이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번 투쟁을 통하여 카륜일대에 사는 지주놈들을 눌러놓고 대중을 혁명적으로 단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지주와 맞설 투쟁방법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곧 혁명조직에서는 마을사람들을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군중집회를 열고 지주의 만행을 폭로

규탄한 다음 지주집으로 달려가 농민내외를 당장 내여놓을것을 강력히 들이대였다.

한편 반제청년동맹지부 일군들과 농민동맹일군들은 지주의 죄행을 적은 항의서를 관청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집단적인 투쟁이 벌어지자 관청도 감히 지주를 비호하려들지 못하였다.

그러자 바빠난것은 지주였다.

여느때없이 단결된 농민들의 기세에 겁을 먹은 지주는 농민내외를 내여놓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주를 단죄규탄하는 군중모임이 련속 진행되고 용서받지 못할 지주의 죄행이 날날이 폭로되였다.

농민내외를 붙잡아다 행패질을 하던 지주는 군중들의 항의투쟁이 계속되자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끝내는 농민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잘못을 사죄하고 치료비까지 물어주었다.

이 소문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뛰여난 지략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로 동북일대에 파다하게 퍼져갔다.

7. 조선혁명의 태양

혁명송가 《조선의 별》

열정적인 시인이며 재능있는 작곡가였던 청년공산주의자 김혁이 창작한 노래 《조선의 별》이 대중속에 보급되기 시작한것은 1928년 가을부터였다.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길림시내 청년학생들의 시위투쟁이 한창 고조되여가고있던 그해 10월 어느날 저녁무렵이였다.

태풍합정미소집에서 혁명조직성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차광수, 김혁, 김원우 등 공청원들을 비롯하여 10여명의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한자리에 모인것으로 하여 그들은 마치 오래간만에 만난것처럼 서로 반갑게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었다.

잠시후 김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방안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여느때없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였다.

《동무들! 지금부터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를 배우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 어떤 유명한 시인이나 음악가가 창작한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 지어본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는 우리의 지도자 한별동지를 조선혁명의 향도성으로 맞이한 우리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끝없는 기쁨과 자랑이 깃들어있는것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아래서 피눈물을 뿌리며 헤매이던 우리 겨레가 찬란

한 향도의 별을 맞이한 오늘의 이 기쁨, 이 영광을 안고 노래를 부릅시다. …》

김혁은 벌겋게 상기된 얼굴을 높이 들고 즉흥시를 읊을 때처럼 흥분해서 가사를 읽어주었다.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3천리 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캄캄한 밤하늘 바라다보니
신음하는 조국산천 어리여오네
변치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마음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간악한 강도 일제 쳐물리치고
3천리에 새별이 더욱 빛날제
조선아 자유의 노래부르자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가사를 다 읽고난 김혁은 노래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는 퉁소로 곡을 연주하더니 다시 소리내여 노래를 불렀다. 김혁의 퉁소반주에 맞추어 한 동무가 선창하는데 따라 청년들은 노래를 배웠다.

노래 1절과 2절을 배우고난 후 그들은 잠시 휴식하게 되였다.

모두가 노래에 담긴 뜻을 가지고 환희에 넘쳐 이야기를 나누고있을 때였다.

차광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젊은 사람을 그렇게 내세우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하시며 성까지 내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 우리는 한별동지의 말씀이라면 단 한번도 어긴적이 없었소. 그것은 우리들자신이 스스로 한별동지를 혁명의 령도자로,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으로 모실것을 결심했기때문이요.

그러나 〈조선의 별〉을 부르지 말라는 한별동지의 말씀만은 받아들일수 없었소.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지난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이 어찌하여 온 강토를 붉은 피로 물들이면서도 참혹한 실패만을 거듭해왔는가.

그것은 혁명의 옳은 진로를 밝혀주고 대중을 하나의 단합된 력량으로 묶어세워 승리에로 이끄는 현명한 지도자가 없었기때문이였소.

뭉치려고 하여도 단결의 중심이 없었고 전진하려고 하여도 곧바른 길을 찾을수가 없었소.

그런데 암흑속에 신음하던 조국땅에 드디여 려명이 밝아왔소.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새별처럼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자가 나타났소.

그분이 바로 우리모두가 한결같이 우러러 따르는 김성주동지이시오.

그분이야말로 조국광복의 새아침을 불러오실 조선의 새별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얼마전에 김성주동지를 통일단결의 영원한 중심으로 모시고 한별동지로 부를것을 조직의 이름으로 결정하였소. 그리고 김혁동무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창작한 〈조선의 별〉을 널리 보급할데 대한 문제도 조직의 결정으로 채택하였소.》

차광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모두 한별동지를 모시고 기어이 조국으로 개선할 결의를 굳게 다지며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목청껏 부르자고 하였다.

모두가 열렬한 박수로 그의 호소에 호응하였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 나온 후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당대 사회를 진감시킨 대규모의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본상품배척투쟁에로 용기백배 떨쳐나섰다.

오각별 명주천

1928년 여름 어느날 차광수는 강동마을의 녀성반제청년동맹원들을 불렀다. 그는 품안에서 손수건만 한 흰 명주천을 여러개 꺼내면서 거기에다 붉은색실로 오각별을 수놓으라는 과업을 주었다.

동맹원들은 며칠밤을 새워가며 명주천에 한뜸한뜸 수를 놓아 그것을 차광수에게 넘겨주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길림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집하신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임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새로운 공작지들에 파견하시면서 거기에 나가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모임이 끝나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새로운 과업을 받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공작지를 향하여 떠나려고 할 때였다.

차광수는 품안에서 붉은색실로 오각별을 수놓은 흰 명주천을 여러개 꺼내였다. 그는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그 명주천을 하나씩 나누어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에 수놓아진 붉은별은 한별동지를 상징한것이고 흰색은 그이를 따르는 우리 마음의 결백성을 상징한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다시 한별동지와 멀리 떨어져 각기 혁명초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붉은별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언제나 한별동지를 생각합시다.

혁명의 길우에는 모진 시련이 가로놓여있다 하더라도 가슴에 품은 붉은별 명주천을 만져보며 혁명의 향도성을 우러러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붉은별 명주천을 받아든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굳은 맹세를 다지고 공작지로 떠나갔다.

태양의 존함

김성주라는 이름은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의미에서 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본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년시절에 증손이라고도 불리우시였다.

그것은 증조할머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수령님을 증손이라고 부르시였기때문에 집안사람들도 그 본을 따서 《증손이》, 《증손이》하고 불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본명을 무척 귀중하게 여기시였다.

1927년 1월 길림육문중학교에 입학하시였을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성주라는 이름으로 입학하시였으며 학교의 선생들과 학생들도 모두 그이를 본명으로 불렀다.

혁명동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한별동지, **김일성**동지로 부르기 시작한것은 1928년 가을부터였다.

이 존함에는 밤하늘에서 어둠을 밀어내고 새날을 불러오는 새별이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동지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기대, 다함없는 신뢰의 정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투쟁무대를 길림으로 옮기시고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부터 선진사조에 민감한 청년학생들과 혁명에 뜻을 둔 사람들의 이목은 일시에 수령님께로 쏠리였다.

옳바른 령도자를 찾아헤매던 열혈청년들이 길림으로 모여들었다. 조선과 만주, 중국관내에서뿐아니라 멀리 연해주와 일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왔다.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심에 불타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생각을 모으던 끝에 조선의 캄캄한 밤하늘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새날을 안아오는 새별이라는 뜻에서 그이의 존함을 한별동지로 부르기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김일성**으로 고치자고 발기한것은 변대우를 비롯한 오가자의 유지들과 최일천과 같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였다.

도고한 유지로 소문난 오가자마을의 변대우로인은 마을유지들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리상촌〉을 맡아줄 임자가 나타났다. 성주네가 그 임자이다. 그들이 하는 식이 사회주의라면 우리도 마음놓고 받아들일수 있다. 성주를 나어린 청년으로만 봐서는 안되겠다. 우리들은 늙었고 시대에도 뒤떨어진 고물딱지들이니 젊은이들에게 오가자를 통채로 떠맡기고 성주네가 하는 일을 힘껏 돕기나 하자.》

변대우로인은 이어 차광수에게 말했다.

《자네들은 그분을 한별동지라고 부른다지. 그런데 어찌 그분을 별에만 비기겠나. 그이는 어두운 강산에 높이 솟은 태양이시네. 이를테면 **김일성**이시네. 내 말이 옳지 않은가?》

차광수는 1930년 가을 어느날 조선혁명군 성원들이 모인 기회에 중대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오가자의 온 마을사람들이 한별동지를 우리 민족의 태양이라고 칭송하고있는데 이것은 오가자만이 아닌 길림과 카륜, 조선의 모든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온 겨레가 우러러 따르는 위대한 한별동지를 어찌 새별에만 비기겠소.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김일성**동지의 명함을 한일자, 별성자대신 날일자에 이룰성자로 하여 **김일성**동지로 할것을 제기하오.》라고 흥분에 넘쳐 말하였다.

우렁찬 박수소리와 함께 《대찬성이요! 절대찬성이요!》라는 목소리가 거듭 울려 방안은 삽시에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날 이때를 회고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아버지가 지어준 본명을 무척 귀중하게 여기고있었기때문에 내 이름을 다르게 지어부르는데 대하여 달가와하지 않았다. 더구나 나를 별이나 태양에 비기면서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추대하는데 대하여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엄하게 단속하고 설복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동무들은 내가 달가와하지 않는다는것을 알면서도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성주》, 《한별》, 《일성》이라는 세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시였다.

8. 옥중투쟁

새로운 투쟁무대

1929년 가을에 이르러 길림의 형세는 매우 삼엄하였다.

만주침공을 눈앞에 둔 일제는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저들의 침략전쟁수행에 가장 큰 장애로 되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있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길림에서 세차게 일어난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비롯한 청년학생운동에 겁을 먹은 일제는 중국의 반동군벌을 부추겨 1929년 가을부터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킴으로써 대중의 반일기세를 억누르고 혁명운동의 지도자를 색출하려고 날뛰였다.

그러한 때에 뜻하지 않게 길림제5중학교에서 단서가 잡혀 조직관계가 드러나게 되자 적들은 이것을 계기로 시안의 청년학생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혁명조직들과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긴장한 활동을 벌리시다가 반동경찰들에게 체포되시였다.

이것은 남만청총대회에서 있은 대결로 하여 앙심을 품은 민족주의자들의 밀고와도 련관되여있었다.

반동경찰들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조직관계와 그 지도자를 알아내려고 체포한 청년학생들에게 무지막지한 고문을 매일같이 들이대고 회유도 하였다. 그러나 손에 잡은 단서란 학생들이 좌익서적들을 사다 보았다는것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좌익서적을 읽었다는것외에 다른 말은 입밖에 내지 않도록 하시고 학생이 책을 읽은것이 무슨 잘못이냐, 우리는 책방에서 파는 책을 사다가 읽었다, 죄를 따지려면 책을 출판하고 팔도록 허가한 당국에 먼저 물어야 할것이 아닌가고 들이대면서 끝까지 뻗치게 하시였던것이다.

청년학생들속에서 아무러한 기소자료도 얻지 못한 적들은 재판도 거치지 않고 《불온사상을 선동했다》는 《죄》를 씌워 청년학생들을 길림감옥으로 이송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과 함께 1929년 가을부터 길림감옥에서 옥중고초를 겪으시게 되였다.

길림감옥은 높이가 5m되는 담벽이 있고 담벽우에 전기줄이 늘어져있으며 간수가 가운데 앉아있으면서 사방을 감시할수 있게 동서남북으로 복도를 내고 그 복도의 량옆에 감방들이 붙어있는 십자형건물이였다.

길림감옥은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가 대단히 심했는데 다른 감옥들에 비해 조선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한 민족적차별을 두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감방은 북쪽복도의 오른쪽으로부터 두번째 칸이였다.

북향이여서 일년내내 해볕이 들지 않아 곰팡이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겨울이면 벽에 성에가 하얗게 돋아 녹을줄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옥중투쟁은 큰 시련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불굴의 의지로 온갖 고초를 꿋꿋이 이겨내시였으며 옥중에서도 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의 투쟁무대라고 할수 있다. 감옥을 단순히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피동에 빠져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나 감옥을 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비좁은 공간속에서도 혁명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줄기의 해빛마저 그리운 감방안에서 자신께서 겪으시는 육체적고통보다도 혁명조직들과 동지들을 걱정하시였고 신음하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더 가슴아프게 생각하시였다.

옥중에서의 독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창속에서 모진 정신적, 육체적고통을 이겨나가시면서도 혁명가의 귀중한 정신적량식으로 되는 학습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직성원들이 들여보내는 《제국주의론》, 《식민지민족문제》 등의 정치리론서적들과 《철의 흐름》, 《압록강가에서》와 같은 혁명적인 소설들을 읽으시였다. 또한 조직에서 보내온 《동아일보》, 《조선일보》, 《길림일보》를 비롯한 신문들도 정상적으로 보시였다.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공황의 실태와 그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는 제국주의렬강들의 책동이 드러나있었다.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투쟁과 국내 도처에서 일제의 폭압과 략탈에 항거하여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폭력적진출에 대한 소식들이 실려있었다.

길림감옥안에서 기상시간은 6시였지만 그이께서는 그보다 한시간 전부터 침구우에 책을 펼쳐놓군 하시였다.

수령님의 지도밑에 다른 동무들도 책을 보군 하였지만 그들은 한시간도 못되여 아파나는 허리와 여러가지 잡념때문에 도중에 집어치우군 하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만은 얼어드는 두손을 입김으로 녹여가시며 열심히 탐독하시였는데 더우기 놀라운것은 속도감이 나게 책을 보시는 속에서도 그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환히 꿰들고계시는것이였다.

그때 감방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물론 그이께 비밀리에 책들과 신문들을 날라다 주던 간수들까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성에가 하얗게 덮인 감방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내는것도 간고한 노릇인데 금지된 독서까지 한다는것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기때문이였다.

어느날 감방안의 한 동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이께 물었다.

《성주동무는 왜 그토록 독서에 열중하오?》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그에게 이렇게 일깨워주시였다.

감옥생활이 어려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혁명을 하여 나라를 찾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만한 시련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학습을 안해서야 되겠는가. 혁명가는 언제 어디서나 혁명을 해야 하며 혁명을 하자면 학습은 단 하루도 미룰수 없는것이다. 맥을 놓지 말고 학습을 하자.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학습뿐아니라 수감된 청년학생들의 학습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교하지방에서 체포되여 그곳 경찰서에 갇혀있다가 이송되여온 려신청년회 조직부장에게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얼마나 학습하였는가고 물으시며 아는대로 이야기해보라고 하시였다.

그는 교하에서 사업할 때 이 책을 볼데 대하여 이미 수령님으로부터 과업을 받았으나 체포된 후에는 학습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었던것만큼 머리에 떠오르는 몇가지 내용만을 두서없이 말씀드릴수밖에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 책의 중심내용을 조리있게 해설하여주시여 그가 한달가까운 사이에 그 내용을 통달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청년들도 학습을 열심히 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청년들은 학습에 열성을

내게 되였으며 그로 하여 감옥안의 우울한 분위기는 가셔지고 학습은 옥중생활에서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되게 되였다.

비록 옥중에 계신 몸이였지만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시도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잊어본적이 없으시였다.

바로 그렇기에 열심히 학습하시였으며 그 과정에 앞으로의 투쟁방도를 모색하고계신것이였다.

그리고 그이께 있어서 옥중에서의 독서는 또 하나의 투쟁이였다.

새 사람이 된 《깡틀》

당시 길림감옥에는 《깡틀》로 불리우는 잡범이 있었다.

《깡틀》이란 감방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자는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마음대로 때리기도 하고 밤에 잘 때도 오줌통결에 재우는 등 별의별 못된짓을 다하였다.

감방안에서 《깡틀》의 존재는 간수들보다 더 대단하였다.

《깡틀》은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대하던 날 이렇게 큰소리쳤다.

《여기에 오면 누구나 다 무슨 죄로 왔다는것을 나한테 보고하게 되였다. 당신들은 조선사람들이기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것 같은데 와서 보고하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지막지한 그런자에게는 처음부터 단호히 맞서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맞받아 호령하시였다.

우리는 죄진 일이 없다. 그러니 무슨 죄로 왔는지도 모른다.

《깡틀》은 잠시 벙벙해있더니 그래도 감방에 들어오면 음식같은 것도 좀 사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먹어야 뒤에 들어온 사람의 인사가 아닌가고 한풀 기가 꺾인 소리로 중얼거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며칠동안 취조실에서 단련을 받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은 어디에서 나며 먹을것은 어데서 생기겠는가,

턱으로 말하면 감방생활을 오래 한 당신들이 내는것이 도리가 아닌가고 하시며 그자에게 돈이 있으면 먼저 선심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깡툴》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할뿐 더는 어쩌지 못하였다.

그와의 첫 대면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어느날 《깡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감방안의 주위가 그이께로 쏠리는데 대해 무척 신경을 쓰면서 다른 조선사람들에게 생트집을 걸었다.

그는 중국사람들은 구차하여 그러니 조선사람들이 집에 편지를 써서 돈을 부쳐오게 하라고 성화를 먹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들이대시였다.

당신들이 말마다 못산다고 하는데 그건 옳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 조선사람들도 구차하게 사는것은 마찬가지이다. 오죽하면 제 나라를 두고 이국땅에 와서 살겠는가. 죄없이 잡혀와서 다같이 고생하는 처지가 아닌가.

그런데 당신은 리유없이 사람들을 못살게 굴며 무서운 세도를 쓰는데 그렇게 해선 못쓴다.

그이의 말씀에 그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더는 못된짓을 하지 못하도록 더욱 엄하게 다불리시였다.

날이 감에 따라 《깡툴》의 전횡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역시 더는 우둘렁거리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깡툴》이 갑자기 독감에 걸려 자리에 드러눕게 되였다. 평소에 그의 행동을 아니꼽게 보아오던 사람들은 그가 응당한 벌을 받았다고 하면서 관심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기도 하시고 간수에게 부탁하여 약도 구해다 먹이시였다.

그리고는 그가 병이 나을 때까지 곁에서 각근히 보살펴주시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깡툴》의 행동거지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수령님앞에서 눈치를 봐가며 행동하는것이 확연히 알렸으며 그이의 편의를 도모해주려고 윈심을 쓰기도 하였다.

한번은 감옥측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죄수들에게 부업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는 먼저 수령님께 의견을 물어보고나서 그이께서 시키는대로 하였다.

감옥안에서 조폭하기로 유명한 《깡툴》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였던것이다.

간수들의 감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옥에서 외부와의 련계를 취하여 파괴된 조직들을 한시바삐 수습하고 움직이게 하며 또한 군벌당국과 싸워 출옥날자를 앞당기기로 결심하시고 옥중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외부와의 련계를 취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면 무엇보다도 간수들을 쟁취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업의 첫 대상으로 비교적 온순하고 민족성이 있는 리가성을 가진 간수를 정하시고 그와 가까이 대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교양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감옥밖에 있는 조직성원들을 통하여 리간수의 출신이 비천하며 그가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간수가 된 사람이라는것을 료해하시였으며 그가 동생의 약혼식을 앞두고 례장감을 장만하지 못하여 안타까와한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조직을 발동하여 그의 애로를 풀어주게 하시였다.

어느날 당직을 서던 그가 조용한 틈을 타서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왔다. 그는 얼마전에 그이께서 《깡툴》을 교양해내신것을 보며 일반죄인들과는 전혀 다른분이시라는것을 느끼고있었다.

행동이 거칠고 붙임성이 없는 《깡툴》, 그것도 조선사람이 병에 걸린 중국사람을 살붙이처럼 돌봐주는것도 그렇거니와 병석에서 일어난

후 간수들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해 쩔쩔매던 괴벽하고 포악한 잡범이 중학생인 그이앞에 갑자기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변하자 자못 신기하게 생각하며 그는 그이를 어렵게 대하기 시작하였다.

리간수는 례장감을 장만해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수령님께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는가고 하며 《감옥당국이 당신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입니까?》하고 묻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사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리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모를 일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비적》이라고 하는데 아무려면 당신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남의것을 빼앗겠는가고, 당신이 공산주의자라는것이 틀림없다면 공산주의자들에게 《비적》의 딱지를 붙이는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공산주의자들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땅에서 일제를 몰아내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다, 돈많고 권세있는 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비적》이라고 하면서 욕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주, 자본가나 토호, 매국노들이 판을 치는 썩어빠진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하기때문이라고 차근차근 깨우쳐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듣고난 리간수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러면 그렇겠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무식하다나니 지금까지 당국의 거짓선전에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말을 곧이듣지 않겠습니다.》

그후부터 리간수는 그이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근무교대를 하고 돌아갈 때면 수령님을 찾아와 다른 감방에 무슨 련락을 할것이 없는지 알아보고 부탁을 꼭꼭 들어주었으며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알려드리기도 하면서 감옥밖의 조직에 통신도 전달해주었다.

수령님께서 요구하시는 숱한 출판물들을 비밀리에 날라다 주기도 하였으며 감옥안의 동지들과 이야기를 나누실수 있도록 은밀히 조건을 보장해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간수밖에도 적지 않은 간수들을 교양하시여 혁명의 동정자로, 옥중투쟁의 방조자로 만드시였다.

많은 간수들이 10대밖에 안되는 그이께 진심을 터놓았고 아낌없는 방조를 드렸다.

신심은 곧 승리

어느날 간수가 새 수인 한사람을 감방안에 던져놓고 갔다.

그는 려신청년회의 조직부장으로 활약하던 강명근이였는데 어찌나 심한 고문을 받았던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알아보시고 이게 강명근동무가 아닌가고 하시며 자신의 곁으로 맞아주시였다.

어둑침침한 감방안에서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던 그는 《아니, 선생님께서 어떻게?…》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옥중에서 수령님을 뵈옵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고문으로 상한 그의 몸을 어루만져주시며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다고 위로해주시였다.

그는 수령님의 손을 꽉 잡고 목메인 소리로 감옥에 들어온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렸다.

강명근은 《주중청총》대회(종파분자들이 1928년 여름에 반석현 지창자에서 벌려놓은 청년단체들의 《통합》회의)에 려신청년회 대표로 참가하여 엠엘파분자들의 협잡행위를 폭로하는 성토문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종파분자들은 앙심을 품고 교하에서 한 청년이 병으로 죽게 되자 반동군벌당국에 강명근을 살인자로 허위밀고하였다.

그는 여러달동안 무서운 고문을 받다가 이렇다할 판결도 없이 미결수로 길림감옥에 이감되여왔다.

수령님앞에서 억울한 옥살이경위를 이야기하는 그의 두볼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마 애매하게 처형당하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나약해졌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분격해하시며 비관에 사로잡혀있는 그에게 혁명을 하겠다고 큰뜻을 품고나선 사람이 그쯤한 일에 의기를 꺾이워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못해낼 일이 없으니 군벌당국과 끝까지 싸워서 죄가 없다는것을 증명하라고 고무해주시였다.

그후 수령님께서는 감옥생활의 어려운 속에서도 그의 정치적식견을 넓혀주기 위해 혁명적소설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학서적들을 탐독하도록 하시면서 혁명가로서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강명근은 비관에 빠졌던 자신을 심각히 돌이켜보고 신심과 용기를 얻었으며 그후 열린 재판정에서 자기의 무죄를 견결히 주장하였다.

감방안의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보면서 혁명가는 그 어떤 절해고도에 있다 해도 절대로 비관해서는 안되며 신심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자각하게 되였다.

강명근은 출옥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반일지하활동을 벌렸으며 해방후에는 조국에 돌아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받고 우당과의 사업에 전심을 다 바쳤다.

항 의 문

1930년 3월 어느날 밤이였다.

자리에 드셨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갑자기 누군가의 비명소리에 놀라 눈을 뜨시였다.

알고보니 한 중국인죄수가 잠결에 쇠고랑을 차고있던 다른 한 사람의

발목을 다쳤는데 심하게 곪았던 그의 상처가 그만 터졌던것이다.

그때 길림감옥에서는 조선인죄수들에게만 무거운 쇠고랑을 차게 하는 악독한 방법을 적용했다.

그러다보니 여러달동안 무거운 쇠고랑을 차고 고문에 시달리던 그 동무의 발목은 늘 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어있었으며 살가죽이 찢어진데는 피고름이 배여나와 보기조차 끔찍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아파 눈물까지 흘리는 그 동무의 발목을 손에 쥐시고 자신의 앞으로 조심히 안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손수건을 꺼내시여 그 동무가 찬 쇠고랑에 감으시고나서 이렇게 하면 발목을 파먹지 않아 덜 아플수 있다고 위로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의 가까이에 앉으시여 죄없는 사람들을 모질게 학대하는 감옥당국에 대한 분노로 하여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다.

다음날 아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거운 쇠고랑을 당장 벗길것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감옥장에게 보낼것을 결심하시고 항의문초안을 쓰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의문에서 죄없는 사람들을 마구 대하는 감옥당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해 폭로단죄하며 법에 위반되는 무거운 쇠고랑을 무조건 가벼운것으로 바꾸어줄데 대하여 강하게 들이대시였다.

그때 수령님의 곁에서 항의문을 읽어보던 감방사람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시며 한몸 내대는분이시라는것은 이미 잘 알고있었지만 이렇게 항의문을 쓰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것이다.

《감옥장을 잘못 건드려놓으면 더 큰 화를 입지 않을가.》

《화를 입을수 있으니 좀더 심중히 생각해보는것이 어떻겠소.》

감방사람들은 물론 상처입은 동무까지도 근심어린 어조로 수령님께 말씀올렸다.

그러나 수령님의 결심에는 조금도 드팀이 없으시였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기껏해서 독감방에 들어갈뿐이지 겁낼것은 없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거듭 항의를 들이대시였으며 감옥측은 끝내 그이께 굴복하여 항의문의 요구대로 종전보다 훨씬 가벼운 쇠고랑을 죄수들에게 채우게 하였다.

봉변을 당한 간수장

위대한 수령님께서 옥중투쟁을 벌리시던 나날에 있은 일이다.

당시 길림감옥에는 교활하고 악독하기가 독사 못지 않다고 하여 모두가 뱀같은 놈이라고 치를 떨던 악질적인 간수장이 있었다.

그자는 발자국소리까지 죽여가며 몰래 감방안을 엿보군 하였는데 쩍하면 강짜로 트집을 걸어서라도 죄없는 사람들에게 매질을 하거나 포악하게 놀기를 즐겨하였다.

하여 감옥에 갇힌 적지 않은 동무들이 그놈에게 괴로운 시달림을 받았으며 일반수인들은 그자가 당번을 서는 시간이면 마음대로 하품조차 하지 못하였다.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그놈에게 단단히 버릇을 가르쳐줄것을 결심하시고 동무들과 그와 관련한 토의를 가지시였다.

그러자 한 중국인학생이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제기하였다.

그는 길림제5중학교 3학년에 다니다가 독서회사건으로 붙잡혀 들어온 황수전이라는 학생이였는데 평소에 남달리 정의감이 강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간수장을 혼내워주면 독감방에 갇히워 적어도 다섯달은 더 고생하겠는데 그래도 일없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제 동무들을 위해 희생할셈치고 어떻게 하든지 그놈을 혼내우겠습니다.》

그리고는 동무들에게 자기가 이제 묘한 방법으로 간수장놈의 버릇을 뚝 떼주겠으니 옆에서 구경이나 하라고 말하였다.

그후 참대저가락끝을 뾰족하게 깎아두었던 황수전은 간수장놈이 감시구로 감방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놈의 눈을 콱 찔렀다.

순간 그놈의 입에서는 경악스러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두눈을 감싼 손가락사이로는 피와 함께 먹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감방안의 사람들은 뜻밖의 변을 당하고 미친놈처럼 발광하는 그자의 몰골을 바라보며 모두 속이 후련해하였다.

허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황수전은 자칫하면 엄벌에 처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 모임을 가지시고 황수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황수전에게 엄벌이 가해질 경우 놈들에게 더 큰 봉변을 들이댈것을 경고하고 모든 동무들이 집단적인 항거에 넘어가도록 하시였다.

동무들은 간수장들과 간수들에게 독감방에 감금한 황수전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네놈들의 눈을 다 찔러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감옥당국에서는 학생들의 투쟁에 질겁하지 않을수 없었다.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그들모두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또다시 어디서 어떤 봉변이 날아올지 두려웠던것이다.

하여 감옥당국에서는 한동안 억류하였던 황수전을 독감방에서 풀어놓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간수장놈이 당한 봉변은 사람들속에서 통쾌한 화제거리로 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일을 이렇게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후부터 우리는 감방에서 하고싶은것을 다 하였다. 모임을 하고싶으면 모임을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감방들에도 마음대로 다니였다. 내가 어느 감방에 가겠다고 하면 간수들은 어서 가보라고 하면서 문까지 열어주었다.》

철창속에서 무르익히신 구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차디찬 감방안에서도 조선혁명의 앞길에 대한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시였으며 이미전부터 구상해오신 조선

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전략전술을 무르익혀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기간 조선인민이 운동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렸는데 왜 투쟁은 승리하지 못하고 매번 주저앉기만 하였는가, 그 본질적약점과 제한성이 무엇인가를 분석해보시였다.

력사적으로 조선의 반일운동대렬안에는 파벌이 형성되여 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반일항쟁의 첫 봉화를 들고 8도강산을 주름잡던 의병대오는 상하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분렬되였으며 독립군의 실태도 다를바 없었다.

독립군은 조직자체에서부터 분산성과 산만성을 드러냈으며 독립운동단체들의 3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나온 다음에도 권력싸움은 그치지 않았고 큰 나라들을 쳐다보면서 쓸데없는 말싸움만 하였다.

인민들과 리탈되여 상층의 몇몇 사람들끼리만 모여앉아 말공부와 권력다툼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지 않은 본질적약점은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속에서도 나타났다.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결속하며 투쟁에 동원할 대신 인민들과 동떨어져 말공부나 하고 《령도권》쟁탈을 위한 권력싸움만 하였다. 그들은 또한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자체로 당을 꾸리고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파를 《정통파》라고 하면서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러 돌아다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행한 조선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이러한 실태를 분석하여보시고 혁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심각히 느끼시였다. 이로부터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승리할수 있으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조선혁명을 어떻게 이끌고나갈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도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자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싸워야 하며 반일력량을 어떻게 하나로 결속하

여야 하겠는가, 혁명의 령도기관으로서의 당을 어떻게 창건하여야 하겠는가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면 무슨 사업부터 착수해야 하겠는가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순간도 사색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구체적현실과 사회계급적제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시고 무장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자면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하며 로동자, 농민,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반일의 기치하에 묶어세워 투쟁에 불러일으키고 파쟁이 없는 새로운 혁명적당을 창건하여야 한다는것을 투쟁방침으로 확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수행해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립장과 관점이 명백해지고 로선과 방침도 뚜렷하게 안겨오게 되자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가야 하겠다는 충동을 누를길없어 출옥날자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기로 하시였다.

군벌당국을 굴복시킨 단식투쟁

반동군벌당국은 청년학생들에게 중형을 들씌울만 한 아무런 증거도 쥐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심의를 질질 끌면서 그들을 무작정 감옥에 가두어두려고 꾀하고있었다.

놈들의 흉계를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체없이 출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다.

1930년 초봄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간수의 도움을 받아 매 감방의 동지들에게 군벌당국의 음흉한 기도를 알려주시고 전체 수감자들을 투쟁에로 조직동원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러자 많은 동지들이 즉석에서 수령님의 제의에 동의해나섰다.

그런데 일부 수감자들속에서는 혹시 놈들에게 잘못 항의를 들이대는 경우 더 큰 봉변을 당할수 있다고 우려하며 주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요하는 그들을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놈들이 무한정 우리들을 이 감옥안에 잡아두려고 하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있을수 있겠는가, 놈들의 술책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증거가 있으면 속히 판결하라고 들이대야 한다, 만약 항의해서도 해결 안되면 외부조직과의 련계밑에 사회적여론을 불러일으켜 놈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항의문을 작성하시여 감방들에 돌리시였다.

－ 죄없는 사람들을 무한정 구류해둘것이 아니라 즉시에 재판하라.

－ 수인들의 대우를 개선하라.

－ 수인들에게서 무거운 쇠고랑을 벗기라.

－ 환자를 치료하라.

－ 감방에서 책을 마음대로 보게 하라.

…

항의문은 전체 수감자들의 이름으로 감옥당국에 제출되였다.

감옥당국에서는 항의문을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수감자들을 모조리 《소요죄》에 걸어 중형을 들씌우겠다고 위협해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처하여 전체 수감자들에게 단식투쟁에 들어갈것을 지시하시였다.

정작 단식투쟁이 시작되자 일반죄수들은 물론 잡범들까지도 모두 호응해나섰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그릇의 음식을 놓고 싸우던 잡범들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감옥취사장에서 만든 수수쉐기밥은 고스란히 취사장으로 되돌아나갔다.

악질간수장과 감옥장이 돌아다니며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하였으나 수감자들은 모두 자리에 누운채 대꾸도 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식투쟁을 벌리시는 한편 외부조직에 지시를 보내시여 길림감옥 수감자들의 단식투쟁에 대한 사회적여론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당시 신문들에는 길림감옥에서 수감자들의 단식투쟁소식이

련이어 실렸으며 감옥당국의 야만적인 처사를 규탄하는 편지가 련속 감옥장과 성공서에 날아들었다.

단식투쟁이 시작되여 닷새째 되던 날에는 반동군벌당국의 한 고관이 감옥에 나와 누워있는 수인들에게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모조리 총살하겠다고 을러메였다.

그러나 수감자들은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가까이에 있는 감방안에서 한 잡범이 이렇게 소리질렀다.

《요구조건을 승인한다고 당신이 먼저 말하라!》

그러자 뒤따라 감방마다에서 전체 수감자들이 들고일어나 놈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요구조건을 승인하라고 들이댔다.

감옥안은 온통 떠나갈듯 하였다.

고관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다.

이튿날 아침 리간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감방앞으로 급히 다가오더니 어제밤 반동군벌당국이 감옥장에게 사건을 더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항의문에 실린 요구조건을 다 수락한다는것을 통고해왔다고 알려드렸다.

단식투쟁은 결국 수감자들의 승리로 끝났으며 며칠 안있어 많은 수감자들이 석방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 5월초 동지들과 함께 길림감옥을 나서시였다.

9. 잊지 못해하신 사람들

류다른 상봉

1927년 봄 어느날 한 안경쟁이청년이 불쑥 위대한 수령님앞에 나타났다.

며칠전 수령님앞에 나타나 자기 소개를 하고 바람같이 사라져버렸던 차광수였다.

그를 위대한 수령님께 소개해준 사람은 화성의숙시절의 최창걸이였다.

언제인가 그의 련락원이 쪽지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차광수란 사람이 길림에 가니 만나보라는것과 자기도 인차 길림에 한번 오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며칠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올때 목이 한쪽으로 약간 기울사한 안경쟁이청년이 불쑥 나타나 밑도 끝도 없이 최창걸이란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이께서 안다고 대답하자 그는 무작정 손부터 내밀었는데 그가 바로 차광수였다.

그날 차광수는 될수록 자기는 말을 적게 하면서 수령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몹시 무뚝뚝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훌쩍 사라졌던것이다.

그는 수령님을 뵈옵자마자 길림바람을 좀 쐬였노라고 하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식으로 그이께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고 말씀드리였다.

당시 장개석이 공산당을 배신한것과 관련하여 중국혁명이 일시적인

퇴조기에 들어서게 되자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일부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돌던 때였다.

이로 하여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진정한 공산주의자와 기회주의자를 가르는 하나의 시금석처럼 되여있었다.

그의 물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일부 타락한 민족주의자들이 일제에게 굴복하여 《자치》와 민족개량주의를 설교하고있지만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지식인들은 국내와 해외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조선독립을 위해 투쟁하고있다.

일제의 야만적식민지통치를 체험하고있는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반일정신이 강하다. 그러므로 그런 민족주의자, 민족자본가들과는 손을 잡아야 한다. …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민족주의자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것은 수령님께서 《ㅌ. ㄷ》를 무으실 때부터 내세우신 립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애국심을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다같이 소유하고있는 공통적인 사상감정으로 보시고 애국애족을 공산주의를 참다운 민족주의와 련결시켜주는 대동맥이며 참다운 민족주의를 련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으로 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차광수를 만나주신 그날도 참다운 민족주의와 부르죠아민족주의는 구별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의 말씀을 듣던 차광수는 돌연히 《성주》라고 하며 그이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는 그이께 자기의 속을 터놓기 시작하였다.

나이가 수령님보다 일곱살이나 우인 그는 일본에 건너가 대학공부까지 한 사람으로서 당시 청년들속에서 맑스주의전문가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공산당거물이라고 하는 화요파의 두령 김찬이나 서상파인물 신일용도 맑스주의론쟁에서는 그한테 어쩌지 못하고 쩔쩔매였다.

그런 그가 참다운 혁명의 길을 찾아 일본에서 서울로 다시 만주로 방황하면서 얻은것이란 령도권쟁탈에 피눈이 된 종파분자들의 파쟁으로부터 오는 쓰디쓴 환멸감과 배신감뿐이였다.

이에 환멸을 느낀 그는 시골훈장이 되여 아이들의 머리에 민족의 정기나 넣어주며 조용히 살아가려고 류하로 갔다.

그러다가 최창걸을 만났고 그의 소개로 길림에 나타나게 되였던것이다.

차광수는 수령님께 이국땅에서 찬비를 맞으며 걸어갈 때 자기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줄수 있는 옳바른 투쟁로선과 지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렸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성주, 우리 서로 믿음과 사랑속에 공산주의운동을 할수 없을가? 분파와 헤게모니싸움이 없이 말이요!》

수령님께서는 믿음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우리 새 세대들은 분렬의 길을 갈것이 아니라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곧바른 길을 가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차광수의 손을 억세게 틀어잡으시였다.

그날 차광수는 최창걸을 통해 수령님을 소개받았을 때의 솔직한 심정도 털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에서 학생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중학생이 맑스-레닌주의를 알면 얼마나 알며 공산주의운동을 하면 얼마나 잘하랴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한번 중떠보려는 마음도 먹었다고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그후 그는 인차 《ㅌ. ㄷ》성원이 되였다.

차광수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청년학생운동을 개척하고 대중의 혁명화를 다그치며 안도일대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항일무장투쟁의 기초를 축성하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혁명시인 김혁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서 공부하시던 1927년 여름 어느날 강의휴식참에 복도에서 상월선생과 이야기를 나누고있을 때 한 학생이 뛰여와서 수령님께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려주었다.

수령님께서 정문에 나가보시니 얼굴이 녀자처럼 곱살하게 생긴 청년이 트렁크를 들고 차광수와 같이 서있었다.

그가 바로 차광수가 말끝마다 재사라고 자랑하던 김혁이였다.

그는 차광수가 자기를 소개하기도 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가서시자 손을 내밀고 《김혁이올시다!》라고 스스럼없이 악수를 청하였다.

그와 인사를 나누신 수령님께서는 차광수에게 량해의 말씀을 하시였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김혁형을 데리고 기숙사에 가서 한시간동안만 기다려주지 않겠소? 어지간한 시간 같으면 결강을 하겠는데 공교롭게도 상월선생이 담당한 문학시간이구만.》

《허허, 상월선생의 문학시간이라면 모두가 오금을 쓰지 못하니 성주도 장차 김혁이처럼 문학가가 되려는게 아니요?》

차광수가 안경테를 추어올리면서 말하였다.

《김성주라고 문학가가 못된다는 법이야 없지. 그런데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문학을 알아야 할것 같애. 어떻소? 김혁형, 그렇지 않소?》

그이의 말씀에 곁에 서있던 김혁이 환성을 올리였다.

《길림에 와서 이제야 귀맛이 당기는 말을 듣는구만. 문학을 떼놓고야 혁명을 론할수가 없지. 혁명 그자체도 문학의 대상이고 모체니까. 문학선생이 그렇게 인기있는 선생이라면 나도 만나고싶소.》

그의 말에 수령님께서는 흔연한 태도를 지으며 말씀하시였다.

《그럼 후날 소개해주기로 합시다.》

얼마후 수령님께서 수업을 끝내고 나오시니 차광수와 김혁은 여전히 수령님을 기다리고있었다.

《숙소에 가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왜 그냥 여기에 서있소?》

수령님께서는 몹시 미안해하며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김혁은 한쪽눈을 쪼프리고 금빛해살이 쏟아져내리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이 좋은 날 바퀴처럼 집안에 들어가 박혀선 뭘하겠소. 이왕이면 여기서부터 길림거리를 하루종일 거닐며 이야기나 나눕시다.》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의 말을 받으시였다.

《금강산구경도 식후경이라는데 점심식사나 한 다음 북산으로 가든가 강남공원 같은 곳으로 갑시다. 김혁형이 상해에서 불원천리하고 우리를 찾아왔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식사도 안시키면 대접이 너무 소홀하지 않소.》

《길림에 와서 성주동무를 만나니 몇끼 굶어도 배고플것 같지 않소.》

이렇게 첫 통성을 하신 수령님께서는 김혁, 차광수와 함께 삼풍려관으로 가시여 함께 식사를 나누시였다.

김혁은 그날부터 옹근 사흘밤이나 수령님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혁명에 대하여, 문학과 예술에 대하여 …

통성을 끝낸 후에는 길림시내를 며칠 돌아보았다.

그 감흥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수령님의 손을 덥석 잡으며 흥분에 겨워 이렇게 말하였다.

《성주, 나는 여기서 닻을 내리겠소. 내 인생은 이제부터요.》

진정한 혁명의 길을 찾아 만리타향을 속절없이 방황하던 그가 비로소 인생의 닻을 내린 곳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길림이였다.

그후 그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한 성원으로, 1930년 7월 3일 카륜에서 조직된 《건설동지사》의 첫 당조직성원으로 되였으며 7월 6일 고유수에서 조선혁명군이 결성되면서 그에 입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첫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비롯한 많은 시와 노래를 창작하고 카륜, 고유수일대에서 신문 《볼쉐위크》의 주필로 사업하면서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고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였다.

1930년 8월초에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받고 할빈일대에 파견되여 활동하던중 비밀련락소에 불의에 들이닥친 적들과 총격전을 벌리던 끝에 최후를 결심하고 3층에서 몸을 던졌다.

자결에 성공하지 못한 그는 적들에게 붙잡혀 려순감옥으로 끌려갔으며 거기에서 옥사하였다.

장울화

장울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오랜 옛 전우였다.

장울화는 조선혁명의 가장 견결한 옹호자였으며 조선혁명을 적극 도와준 국제주의자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길림육문중학교에 입학하시였을 때 장울화도 수령님과 함께 길림육문중학교에서 공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장울화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저지를가봐 걱정되여 그를 길림육문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두고 그에게 장사하는 법을 배워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장울화는 장사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장울화는 자기 아버지가 형인 장울중은 연대에 있는 학교에 보내여 공부시키면서도 자기는 길림육문중학교에 보내주지 않는데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해오다가 하루는 몰래 아버지의 권총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계시는 길림으로 왔다.

장울화가 길림에 온 며칠후에 그의 형인 장울중이 가병들을 데리고 길림육문중학교에 찾아왔다. 그는 온 집안식구들이 동생이 혹시 토비

들에게 랍치되지 않았는가 하여 몹시 걱정하였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도 아들을 찾기 위하여 여러 지방을 돌아다녔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울화의 형에게 우리가 옆에서 잘 돌봐줄테니 동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시였다.

그랬더니 그는 자기 동생을 위대한 수령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장울화에게서 권총도 빼앗지 않고 무송으로 돌아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지하혁명투쟁을 할 때는 물론 항일무장투쟁을 벌릴 때에도 장울화와 긴밀한 련계를 가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 8월 중순 어느날 파괴된 지하혁명조직을 복구하기 위하여 길림에서 렬차를 타고 해룡으로 가신적이 있었다.

당시 해룡에는 일본령사관이 있었는데 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까지 가지고다니면서 수령님을 체포하려고 날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룡으로 갈 때 렬차안에서 우연히 장울화를 만나게 되시였다.

장울화는 렬차안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자 다짜고짜 자기가 탄 1등칸으로 모시고갔다.

장울화는 심양으로 공부하러 가는 길에 수령님을 찾아 길림에 갔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알만한 조선사람들은 다 숨고 눈에 보이는것은 군경이 아니면 왜놈개들뿐이더라. 성주를 만나러 갔는데 만날수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심양으로 가는 길이다.》

이때 순사들과 검표원들이 려객들에 대한 조사를 살벌하게 하였는데 장울화의 배경때문이였던지 수령님과 장울화만은 그냥 지나쳐갔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울화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그의 도움으로 해룡까지 함께 무사히 가실수 있었다.

그런데 렬차가 해룡역에 도착하니 적들이 거기에도 대기하고있었다. 홈과 개찰구옆에 일본령사관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을 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륙감으로 자신께 위험이 닥쳐왔다는것을 느끼시며 창밖을 내다보시였다.

이때 장울화는 그이께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 자기와 함께 가자고, 같이 가서 아버지도 만나보고 자기의 장래문제도 의논해보자고 청을 드렸다.

수령님께서는 원래 초시역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가려고 계획하고 계시였다.

해룡역에서 초시역까지는 몇정거장 더 가야 하는데 장울화가 여기서 내리게 되면 다시금 위험이 조성될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요청에 응하시였다.

역에는 마침 장울화의 아버지가 나와있었다.

그는 영구라는 곳에 가서 인삼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해룡으로 온다는 소식을 받고 역에 와있었다.

허리에 목갑싸창을 찬 수십명의 가병들이 고급마차를 들이대였는데 행색이 여간 으리으리하지 않았다.

그통에 령사관경찰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감히 접어들념을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울화의 아버지가 가지고온 고급마차를 타고 가병들의 호위까지 받으시면서 무사히 역을 벗어나시였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고급려관에 들어 장울화네와 함께 지내시였다.

장울화는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네 마차에 태워 해룡현과 청원현의 경계에 있는 중국동무의 집까지 함께 동행하였다.

장울화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헤치며 길림을 거쳐 교하로 가시였다.

그후 장울화는 무송청년조직책임자로, 공산당원으로 되였으며 무송시내에서 상점과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혁명조직을 늘이고 반일인민유격대에 대한 물질적지원사업을 적극 벌리였다.

1937년 가을 변절자의 밀고로 경찰에 체포되였을 때 아버지의 도움으로 가석방된 기회를 리용하여 《적들이 특무를 파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부를 찾고있다. 사령부를 빨리 옮기기 바란다.》는 내용

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보내는 편지를 쓰고 사진현상약으로 쓰는 승홍을 먹고 자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와준 벗이였고 은인이였으며 혁명전우였던 장울화를 평생 잊지 못해하시였으며 생전에 그의 유가족들을 자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울화서거 55돐에 즈음하여서는 자신의 친필이 새겨진 기념비를 그의 묘소에 세워주도록 하시였다.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친필이 씌여져있다.

《장울화렬사의 혁명업적은 조중인민의 친선의 빛나는 상징이다. 렬사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혁명업적은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김 일 성

1992년 10월 27일》

상월선생

상월선생은 1928년 2월경에 길림육문중학교 어문교원으로 부임되여 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육문중학교시절에 어문학을 배워준 상월선생에 대하여 자주 회고하시였다.

《홍루몽》으로 맺어진 인연

어느날 상월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부하시는 학급에 《홍루몽》을 가지고 첫 강의를 하였는데 순식간에 학생들의 인기를 독점하였다.

그는 본질을 추리고 거기에 중요한 생활세부들을 끊임없이 섞어가며 그 소설이 가지고있는 생리와 가부장적전통이 지배하는 한 귀족

가문의 조락과정을 세련된 솜씨로 이야기를 펼쳐나감으로써 학생들이 120회에 달하는 《홍루몽》의 방대한 줄거리를 한시간사이에 다 소화시킬수 있게 만들었다.

상월선생이 수업을 끝내고 교실에서 나가자 학생들은 육문중학교에 보배가 굴러들어왔다고 하면서 환성을 올렸다.

그런데 상월선생은 강의에서 《홍루몽》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면서도 그 소설을 창작한 작가에 대해서는 적게 소개하였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몹시 알고싶으시였다.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운동장둘레를 산책하는 상월선생을 찾아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홍루몽》의 저자 조설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뜻밖의 질문을 받게 된 상월선생은 웃음을 지으며 시간의 부족으로 하여 강의에서 작가의 경력은 생략하고 지나갔는데 학생이 그런 요구를 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조설근의 생애와 집안래력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선생의 설명이 끝난 다음 수령님께서는 련이어 작가의 출신성분과 작품의 계급적성격의 호상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시였다.

상월선생은 그 질문에 대해서도 명백한 해답을 주었다.

그는 자기의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전제를 두면서 작가의 출신성분이 작품의 계급적성격에 영향을 주는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격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은 출신성분이 아니라 작가의 세계관이라고 말하였다.

그 실례로 그는 《홍루몽》의 저자인 조설근을 들었다.

그가 청나라 강희황제의 특별대우를 받는 귀족가문에서 태여나 부유한 환경속에서 자라났지만 《홍루몽》에서 붕괴기에 있는 봉건중국의 내막과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형상적으로 보여줄수 있은것은 그의 세계관이 진보적이였기때문이라고 설명해주었다.

그날 상월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성주학생이 오늘 나를 찾아온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의문되는것이 있거나 해명하고싶은것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지체없이 교원

의 방조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과학을 탐구하는데서 학생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때와 장소에 구애되지 말고 질문을 많이 제기하라. 나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홍루몽》도 있고 조설근의 략력을 발취해놓은 자료집도 있으니 보고싶거든 아무때나 와서 가져가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상월선생과의 남다른 인연은 이렇게 맺어지게 되였다.

개방된 서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선생의 숙소를 방문하게 되시였는데 그의 서가에는 정말 소설책들도 많고 전기문학작품들도 많았다.

그이께서 지금까지 보아온 서가들중에서도 가장 풍성하고 이채로운 서가였다.

그이께서는 이 서가의 지식을 다 섭취하면 대학을 하나쯤 더 다닌것으로 되지 않겠는가고 생각하시였다.

손에 잡히는대로 책을 뽑아보시다가 수령님께서는 상월선생에게 이렇게 물으시였다.

《실례이지만 선생님, 이 서가를 갖추는데 몇해나 걸렸습니까?》

상월선생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 10년쯤 걸린것 같애.》

《이 책들을 다 읽는데는 얼마만큼한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까?》

《부지런하면 삼년, 게으르면 백년.》

《선생님, 삼년을 기한으로 제가 이 책들을 다 읽는다면 저에게 서가를 개방해주시겠습니까?》

《개방하지. 그런데 조건부가 있소.》

《책만 빌려주신다면 어떤 조건부든지 다 접수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구 성주가 장차 작가로 되여야 한다는 조건부야. 나는 오래전부터 프로레타리아혁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작가후비를

한두명 키우려고 했는데 성주가 그 후비중의 한사람이 될수 없겠는가 하는거요.》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실 전 문학과목을 특별히 사랑하고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몹시 동경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독립된 후에는 혹시 문학의 길을 선택하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저희들은 나라를 빼앗긴 망국민의 자식들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나라를 찾으려고 한평생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장차 독립투쟁에 몸을 바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대의 리상이구 포부입니다.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 곧 저의 직업으로 될것입니다.》

상월선생은 서가에 기대여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연방 끄덕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장하오, 성주! 독립투쟁이 리상이라면 나는 그 리상을 조건부로 이 서가를 성주에게 통채로 개방하겠소.》

수령님께서는 그날 《홍루몽》을 빌려가지고 숙소로 돌아오시였다.

그리고 그후에는 《압록강가에서》와 《소년방랑자》, 《어머니》와 같은 소설책들을 빌려보시였다.

새로운 문제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상월선생과 문학에 대한 견해를 자주 교환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상월선생과 로신의 작품인 《축복》을 보신 소감을 나누신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상월선생에게 소설의 주인공이 얼어죽지 않으면 안되게 된 비극적운명의 원인이 어디 있는것 같은가고 물으시였다.

상월선생은 그것은 가난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물론 선생님의 말씀처럼 가난한것으로 하여 주인공 녀성이 그런 비극적인 운명의 길을 걷게 된것은 사실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될수 있겠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수령님으로부터 거듭되는 질문을 받은 상월선생은 한동안 생각이 깊어졌다.

(돈이 없는 가난뱅이인탓에 상림아주머니가 눈보라치는 길가에서 밥을 빌어먹다가 남들이 설날을 축복하며 즐겁게 노는 섣달그믐날밤에 눈덮인 길가에 쓰러져 한많은 세상을 떠난것이 아닌가?)

이런 심중에서 깨여난 상월선생은 수령님께 이렇게 물었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오?》

상월선생의 물음에 수령님께서는 가난을 낳게 한 사회, 인간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착취사회가 그 근본원인이 아닌가고 반문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얼마 안되는 지배계급, 착취계급들에 의하여 조선과 중국의 수억만 인민들이 비참한 참상을 겪고있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고나서 계속하시였다.

《인간의 이러한 비극적인 운명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자면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현상을 예리하게 투시해보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상월선생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온갖 사회악과 불행의 근원이 사회제도 그자체에 있다는것은 그가 여직껏 대상해온 숱한 학생들중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점이였던것이다.

가장 절박한 문제

상월선생은 어느날 학생들에게 레닌과 고리끼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레닌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어떻게 우유로 편지를 써서 밖에 있는 동지들의 혁명투쟁을 지도하였는가에 대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레닌이 이룩한 업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선생의 말을 흥미있게 듣고 격동된 학생들은 모두 《레닌을 따라 배우자.》, 《쏘련에 가자.》고들 하였다.

그러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조용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그이의 곁으로 다가간 상월선생은 수령님께 쏘련에 가고싶지 않은가고 물었다.

떠들썩하던 학생들의 시선도 일제히 수령님께로 쏠리였다.

수령님께서는 상월선생에게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저도 쏘련에 가서 공부하고싶습니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조선에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왜놈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광복하는것입니다.》

1964년 상월선생은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그때 벌써 마음속 깊은 곳에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을 벌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결심을 확고히 간직하고계셨던것이다.》

그후의 이야기

상월선생은 그후 교육청의 조치에 따라 부당하게 출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복교를 위해 투쟁하다가 철직되여 육문중학교를 떠나갔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춘과 카륜지방에 가서 대중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고계시였다.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학교에 돌아오시니 한 학생이 상월선생이 남기고간 편지를 전해주었다.

그 편지에는 나는 군벌과의 싸움에서 패자가 되여 떠나간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군벌을 이기게 될것이다, 조국과 민중의 참된

아들이 되여 한생을 살기로 결심한 성주의 리념을 위해 나는 어디 가서나 성주에게 다함없는 축복을 보낼것이다라는 사연이 적혀있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남긴 상월선생의 마지막대화였다.

수령님께서는 그후로는 상월선생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의 지도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에게 상월선생의 안부를 자주 묻군 하시였다.

하지만 선생과의 상봉은 아쉽게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길림을 떠난 상월선생은 할빈, 상해, 베이징, 연안 등지에서 당사업과 교육사업, 문화사업, 문필사업에 참가하였다. 한때는 만주성당위원회에서 비서장으로도 사업하였다.

상월선생은 1955년과 1980년에 위대한 수령님께 《나와 소년시절의 **김일성**원수와의 력사적관계》와 《중국력사강요》라는 글을 올리였다.

상월선생은 베이징에 있는 중국인민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1982년에 세상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한생을 두고 회고할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인간이다. 그러니 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

나의 청춘시절에 지울수 없는 자국을 새긴 상월선생이 그리워질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육문중학교 교정을 거닐어보군 한다.》

손정도목사와 그 일가

잊지 못하시는 은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에서 중학교를 다니실 때는 물론 옥중투쟁을 하실 때 손정도목사의 방조를 많이 받으시였다.

원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같은 숭실

중학교출신으로서 조선독립에 관한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선생님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고있었다.

그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수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서 민족을 위해 투신하시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강반석어머님께서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는 속에서도 다달이 학비를 보내주고있다는것을 알고는 여러번 수령님의 학비를 보태주었고 손목사의 부인은 명절때면 수령님을 청해다 조선음식도 만들어 대접하군 하였다.

특히 수령님께서 옥중투쟁을 하실 때는 일곱달동안 꾸준히 옥바라지를 해왔으며 수령님을 하루빨리 출옥시키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여러가지 차입을 하는 한편 옥리들에게 돈도 많이 찔러주었으며 길림독군서에서 우두머리노릇을 한 장작상에게 뢰물을 먹이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석방시키기 위한 청원운동을 이끌고나간 주동인물도 바로 손목사였다.

하기에 감옥을 나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맨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손정도목사의 집이였다.

손정도목사는 자기 자식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것처럼 기뻐하면서 수령님을 맞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군벌이 자네를 일본놈들에게 넘겨줄가봐 우리는 은근히 마음을 조이였네. 형을 지지 않고 무사히 풀려나왔으니 천만다행일세.》

《목사님께서 후원을 잘해주신 덕에 저는 감옥생활을 한결 헐하게 했습니다. 저때문에 옥리들에게 돈도 많이 찔러주셨다는데 그 신세를 무엇으로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손목사는 수령님을 바래주면서 당부하였다.

《정세가 삼엄한것만큼 길림에는 더 있지 말아주게. 이 고장 형세가 이만저만 흉흉하지 않아.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어디 가서나 신변을 주의

해야 하네. 간도에 가더라도 당분간은 벽촌에 숨어서 정양을 하는게 좋겠네.》

손목사를 비롯한 독립운동자들의 후원으로 수령님께서 감옥에서 석방된것이 얼마나 시기적절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은 다음해 9.18사변후의 만주정세가 웅변으로 증명해주었다.

중국의 동북 3성을 단숨에 점령한 일제는 길림감옥의 명부를 뒤지면서 군벌들에게 김성주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일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께서 감옥에서 제때에 석방되지 않았더라면 일본놈들에게 붙잡혀 10년쯤 옥중생활을 더 하였을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무장투쟁을 하지 못하였을것이라고 회고하시였다.

그 이듬해 봄에 손정도목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월구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생일날의 《짱즈궈즈》

1927년 여름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립운동자들과의 관계문제와 례배당리용문제 등의 문제들을 의논하시려고 손정도목사의 집을 찾아가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래동안 손정도목사와 이야기를 나누신 후 손원태와 손인실을 데리시고 반나절이나 거리구경도 하고 재미나는 이야기도 들려주시였다.

목사의 아들 손원태와 그의 누이동생 손인실은 모두 조선인길림소년회 회원들이였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물으시였다.

가다니, 어디로 가, 오늘은 내가 한턱 내야지, 원태의 생일이라지?

《예?!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아까 아버지와 함께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얼핏 들었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손원태와 손인실은 그제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왜 자기들을 데리고 시내로 나오시였는가를 알게 되였다.

손원태의 남매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어느 한 중국음식점으로 들어갔다.

음식점에서는 《쨩즈궈즈》를 팔고있었다. 《쨩즈궈즈》란 콩국과 기름에 튀긴 꽈배기 비슷한 중국음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쨩즈궈즈》를 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맛있게 음식을 먹고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못내 미안하신듯 한해에 한번밖에 돌아오지 않는 생일을 잘 쇠는것은 지난날을 추억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조선사람들은 화려하고 기름진 생일상을 받아보기는 고사하고 당장 입에 넣을 죽도 없어 굶주리고있다, 오늘 너희들이 생일을 잘 쉰다면 내 마음도 더없이 기쁘겠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모두 어렵게 살다보니 오늘은 너희들에게 《쨩즈궈즈》밖에 더 다른 좋은 음식을 사주지 못한다, 널리 리해하고 진수성찬 못지 않게 여기고 많이 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60여년이라는 인간의 옹근 한생에 맞먹는 장구한 세월이 흘러간 1991년 5월이였다.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에서 병리학의사로 일하던 손정도목사의 아들 손원태가 조국을 방문하였다.

송화강 모래터에서 소년회원들과 류길학우회원들이 《땅》편과 《바다》편으로 갈라져서 군사놀이를 할 때 매번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휘하시는 편에 들겠다고 싱갱이질을 하던 10대의 연약한 소학생 손원태는 생일 80돐을 앞둔 백발로인이 되여 수령님앞에 나서게 되였다.

그러나 60풍상의 지꿏은 장난도 그의 백발밑에 뚜렷이 새겨진 길림시절의 흔적을 지워버릴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원태와 함께 길림에서 보낸 나날들을 끝없이 회상하시였다.

손원태는 한 나라의 수반과 회견한다는 공식적인 관념은 조금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께 이런 청까지 하였다.

《주석님, 언제 나에게 〈쨩즈궈즈〉를 사주시겠습니까? 길림에 있을 때 주석님과 함께 들던 〈빙땅훌루〉도 먹고싶습니다.》

손원태는 롱삼아 그런 말을 했다.

《〈쨩즈궈즈〉가 먹고싶다면 다음번에 해주겠소.》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다음번이 아니라 당장에 《쨩즈궈즈》를 해먹이고싶으시였다.

그리하여 이틀후에 손원태부부에게 《쨩즈궈즈》가 전달되였다.

조반전에 그 음식을 받은 손원태는 김주석님덕분에 어린시절에 즐겨 먹던 《쨩즈궈즈》를 먹게 되였다고 하면서 눈물을 삼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때를 회고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정은 시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있다. 시간의 힘앞에서는 모든것이 퇴색하고 조락해버리지만 인정 하나만은 매장시켜버리지 못한다. 진실하게 맺어진 우정이나 사랑에는 로쇠라는것도 있을수 없고 변질이라는것도 있을수 없다.》

행로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두절되였던 위대한 수령님과 손원태와의 우정은 이렇게 6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뛰여넘어 다시 이어졌다.

10. 친히 창작하신 문예작품들

혁명가무 《13도자랑》

무대우에 조선의 13도를 대표하여 13명의 연예선전대원들이 서로 색갈을 다르게 그린 각 도별지도를 하나씩 들고나와 춤을 추면서 조선지도를 아름답게 펼쳐놓는 형상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조국을 일떠세울 열렬한 지향과 결의를 보여준다.

혁명가무 《단심줄》

로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연예선전대원들이 붉은 기둥을 중심으로 하여 드리워진 여러가지 색갈의 천을 잡고 《단심가》에 맞추어 춤을 추는 가무이다.

혁명연극 《3인1당》

당시 조선의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파벌싸움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창작되였다.

《송도국》이라는 환상적인 나라에서 서로 왕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자리다툼을 하다가 나라까지 망하게 만드는 세 정승의 풍자적형상을 통하여 파쟁과 분렬의 교훈을 안겨준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

《헤그밀사사건》을 절정으로 하는 주인공 리준의 국권회복을 위한 활동과정을 실지 있은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당대 사회의 시대상과 각계층 인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면서 남의 힘을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상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연극은 일제가 1905년에 강압적으로 날조한 망국적인 《을사5조약》에 의하여 조선이 일제침략자들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한 후 일제와의 민족적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된 정치정세를 배경으로 깔고 1907년 7월에 일어난 력사적사실인 《헤그밀사사건》과 관련한 리준의 애국적행동을 소재로 하고있다.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조선의 열혈청년 안중근의 애국적활동을 통하여 19세기말-20세기초 사회력사적현실을 폭넓게 반영하면서 나라의 독립은 개인복수와 테로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거해서만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

인민대중의 의식화문제를 절박한 요구로 제기한 1920년대말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였다.

연극은 삼치골농민들의 생활을 통하여 근로하는 인민들은 모진 가

난속에서도 열심히 배워 옳바른 사회적의식을 가져야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심오한 생활의 진리를 밝히고있다.

혁명가요 《조선의 노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를 빼앗기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살아가는 소년들에게 조선의 넋을 심어주고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깊은 뜻을 안으시고 이 노래를 창작하시였다.

노래는 당시 발간된 《새날》신문에 발표되였으며 소년들과 광범한 인민들의 사랑속에 널리 보급되였다.

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내 나라
이 세상 그 어데 찾아볼수 있을가

삼천리강산에 은금보화 넘치고
반만년 력사를 자랑하는 내 나라
간악한 왜놈들 이 땅에서 내쫓고
해방의 종소리 높이높이 울리자

왜놈도 지주도 모두 없는 새 조선
자유의 강산에 우리 주권 세우자
슬기론 인민이 살아가는 내 나라
우리의 손으로 길이길이 빛내자

혁명가요 《사향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8년 8월 하순 어느날 진명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에게 **《사향가》**의 가사를 먼저 불러주신 다음 노래에 담긴 깊은 뜻을 설명하여주시고 한 소절씩 배워주시였다.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우리 집에서 멀지 않게 조금 나가면
작은 시내 돌돌 흐르고 어린 동생들
뛰노는 모양 아 눈에 삼삼해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세월은 흘러도

(맺는말을 대신하여)

길림육문중학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연고지의 하나인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 있다.

학교는 시내중심에서 좀 떨어진 송화강반에 자리잡고있다.

길림육문중학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부하시던 옛 교사와 함께 그 동쪽에 일떠선 새 교사, 기숙사, 강당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ㄷ》자형으로 된 단층건물의 옛 교사는 1917년에 길림시의 신흥사회계에서 세운 사립학교이다.

앞에는 송화강이 흐르고 뒤에는 북산이 솟아있어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에 자리잡고있는 학교는 설립될 당시 산천이 아름다운 곳에서 수재가 많이 나온다는 뜻을 담아 길림육문중학교로 명명되였다.

1917년 3월에 개교한 후 학교는 《달재성덕》을 리념으로 삼고 교육의 과학화, 지식의 생활화, 실학실용, 성과 나라의 건설, 육문의 생활은 건전한것, 육문의 사명은 창조하는것, 육문의 생명은 영원한것을 구호로 내세웠다. 또한 단결우애, 규률엄수, 성실한 품성과 공부를 잘하는것을 원칙으로, 사상과 교재, 방법이 새로운것을 특징으로 하여 길림시에서 참신한 기치를 들었다.

학교는 1935년에 이 학교의 진보적교원들과 학생들이 반동군벌들과 그 앞잡이인 반동교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는 리유로 하여 강제로 해체되였다.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중국당과 정부는 교육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면서 학교의 옛 교사에 길림제22중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64년 2월에는 등소평동지의 지시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모범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길림육문중학교의 명칭을 원래대로 회복하였다.

학교는 1960년에 조선의 창덕학교와 친선관계를 맺었다.

원상그대로 보존되여있는 옛 교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부하시던 교실이 있다.

교실에는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와 학생모자를 쓰신 그 시기의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한 반신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에는 이런 사연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서 공부하시던 어느날이였다.

수령님께서는 강반석어머님으로부터 송금통지서와 함께 편지를 받으신적이 있었는데 편지에는 돈을 조금 더 보내니 보고싶을 때 볼수 있게 생일기념으로 사진을 한장 찍어보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의 부탁대로 독사진을 찍어 보내드리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혁명의 길에 나선 반일부녀회원이였던 채주선이 결혼을 한 다음 시가를 떠나 무송에서 얼마쯤 떨어진 다영이라는 곳으로 이사가게 되였다.

이때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댁으로 찾아와 헤여지기가 섭섭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그 어디에 가도 빼앗긴 조국을 잊지 말고 혁명을 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옷농문을 여시고 소중히 간직하였던 한장의 사진을 꺼내주시였다.

그 사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육문중학교시절에 교복을 입고 찍으신 한장밖에 없는 귀중한 사진이였다.

채주선이 사진을 선뜻 받지 못하고 주춤거리자 강반석어머님께서는 기념으로 받으라고 하시며 손에 꼭 쥐여주시였다.

해방전에 일제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탄압하였다. 그러다보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에서 사진을 여러장 찍으시였지만 다 없어지고말았다.

채주선은 일제의 탄압속에서도 이 사진을 감추어두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군 하였다.

그러던 그가 1959년 항일무장투쟁전적지를 답사한 일군들에게 그 사진을 내놓음으로써 조선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교실에는 또한 90년전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위대한 수령님의 체취가 그대로 슴배여있는 책걸상을 비롯한 혁명사적물들도 있다.

뚜껑식으로 된 책상우에는 중국글자와 조선글자로 《**김일성**동지 독서시기의 좌석》이라고 쓴 표식이 놓여있다.

옛 교사의 앞마당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다.

동상은 외투자락을 날리시며 왼손에는 쌍안경을, 오른손에는 군모를 벗어드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게 형상하고 있다.

이 동상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어깨겯고 싸우시면서 마련하신 불멸의 조중친선을 변함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뜨거운 지성이 깃들어있다.

원래 학교에는 1960년대 중엽에 건립된 위대한 수령님의 반신상이 모셔져있었다.

그후 중국당과 정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새로 모실데 대한 조치를 취한데 이어 1년반동안에 본래의 반신상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도 그 형상수준을 더욱 높인 지금의 동상을 훌륭히 모시도록 하였다.

1986년 10월에 제막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은 중국에 있는 첫 외국수반의 동상이다.

옛 교사에는 《**김일성**동지독서기념실》이 꾸려져있다.

1995년 9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 기념실의 력사는 60여년을 헤아린다.

중국당과 정부는 1953년에 《**김일성**원수독서기념실》을 설치하고 그후에 그것을 《**김일성**동지독서기념실》로 명명하였다.

이 기념실은 지난 시기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여러차례에 걸쳐 개건되였으며 특히 2005년 태양절을 맞으며 기념실의 벽면과 바닥 등은

1920년대말 당시의 원상그대로 꾸려졌다.

3개의 방으로 된 기념실에는 귀중한 사진자료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교에 보내주신 선물들이 진렬보존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중국을 방문하시였을 때 조선민족악기를 선물로 보내주신데 이어 1964년에 학교이름을 길림육문중학교로 회복하는 모임에 창덕학교대표단을 파견하여주시였다.

그리고 1974년에 공작기계와 동식물표본을, 1983년에는 수예품《금강산》을 비롯하여 창덕학교대표단이 여러 기회에 길림육문중학교를 방문하고 매번 위대한 수령님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2010년 8월 길림육문중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중친선의 상징이며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길림육문중학교가 훌륭한 일군들을 더 많이 키우기를 바란다는 친필을 남기시였다.

오늘 길림육문중학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부하신 학교로 하여 그 이름도 빛나고있으며 그이의 초기혁명활동시기의 투쟁업적을 전하는 장소로, 조중 두 나라, 두 인민간의 영원한 친선단결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길림시절의 김일성주석

집필: 박춘남
편집: 안철강
교정: 김명숙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108(2019)년 7월

ㄱ-198259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korean-books.com.kp